

02

데이터베이스 산업 동향

제1장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동향

제1절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현황

제2절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제2장

해외 데이터베이스 산업 동향

제1절 해외 정보서비스 시장 현황

제2절 해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시장 현황

제3절 빅데이터 시장 현황

전문가 칼럼

김인현 대표(투이컨설팅 / 2013 데이터 구루 수상자)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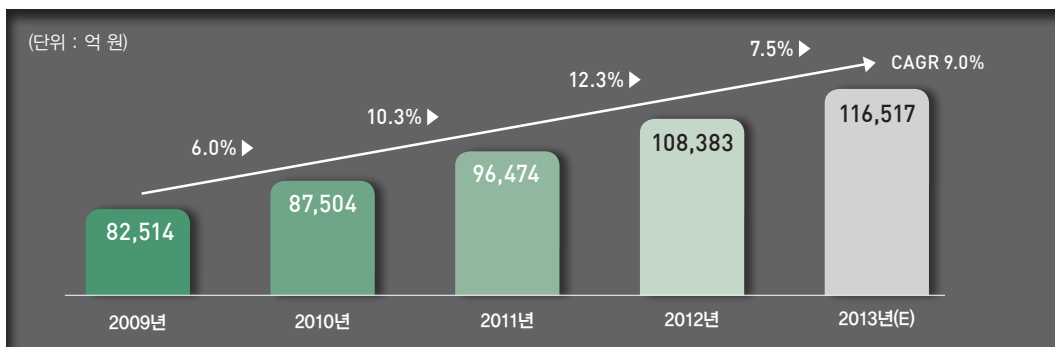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동향³⁾

제1절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현황

1. 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 DB산업 시장은 2012년 10조 8,38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2.3%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11조 6,517억 원으로 2012년 대비 7.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3%⁴⁾와 견주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DB산업은 연평균 성장률 9.0%로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그림 2-1-1) 국내 DB산업 시장 규모



3)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동향은 「2013년도 데이터베이스 산업 시장 분석 결과보고서(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를 요약·발췌하여 작성함

4) 2013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2013.12.

5) 2013년 조사부터 DB보안 영역을 DB취약점 분석, 접근통제, DB암호화 등 순수DB보안 영역으로 시장범위를 한정하여 DB산업 시장 규모를 산정했으며, 이를 위해 2009년부터 누적해온 실측치를 반영해 2013년까지 DB산업 시장 규모를 정리하였으므로, 2012년도 보고서 수치와 다름을 미리 밝힘

DB산업은 구축, 컨설팅, 솔루션, 서비스 4개 부문의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2013년 부문별 시장 규모는 DB구축 4조 9,328억 원, DB컨설팅 2,092억 원, DB솔루션 1조 3,728억 원, 그리고 DB서비스 5조 1,369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부문별로 최근 5년간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1〉 국내 DB산업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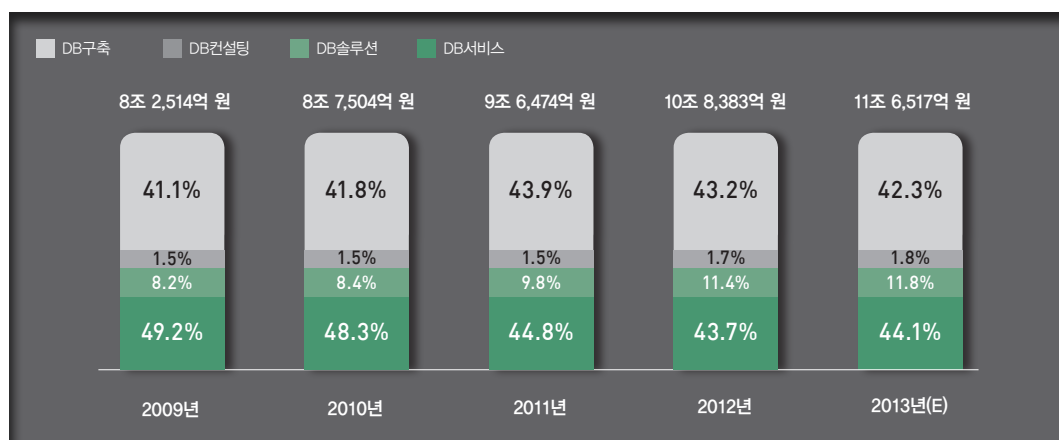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DB구축	33,928	36,610	42,374	46,865	49,328	10.6%	5.3%	9.8%
DB컨설팅	1,220	1,321	1,447	1,877	2,092	29.7%	11.5%	14.4%
DB솔루션	6,728	7,331	9,435	12,326	13,728	30.6%	11.4%	19.5%
DB서비스	40,638	42,242	43,218	47,315	51,369	9.5%	8.6%	6.0%
전체	82,514	87,504	96,474	108,383	116,517	12.3%	7.5%	9.0%

* 백만 원 단위에서 올림처리 하여 총합과 부문별 합에 차이가 있음

※ 출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년도 데이터베이스 산업 시장 분석 결과보고서, 2013.12. 이하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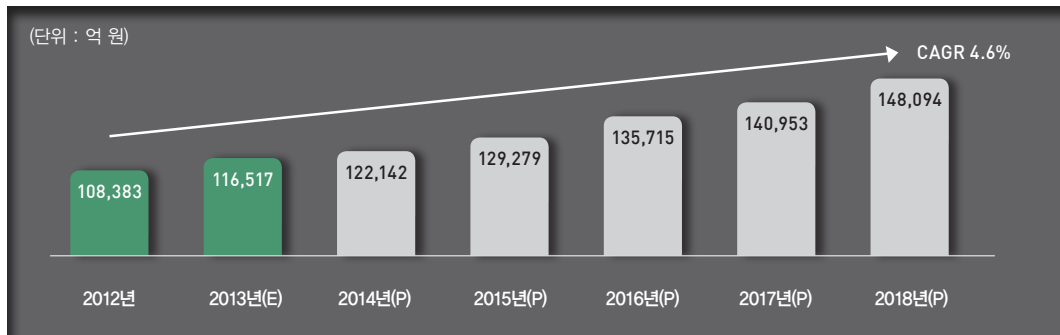
2013년 가장 큰 시장 비중을 차지한 부문은 DB서비스 시장으로 DB산업 시장의 4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DB구축 시장이 42.3%, DB솔루션 시장 11.8%, DB컨설팅 시장 1.8%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시장 비중은 최근 5년 동안 큰 변동은 없으나 DB솔루션 시장 비중이 2009년 8.2%에서 2013년 11.8%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고 DB서비스 시장 비중은 2012년까지 매년 소폭 감소하다가 2013년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DB산업 부문별 시장 비중 변동 추이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 진화, 국산 DB솔루션 기업과 컨설팅 기업의 협업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등은 2013년 DB산업 성장에 탄력을 더했고, 이러한 흐름은 2014년에도 DB산업 성장을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DB산업 시장은 2014년 12조 원을 넘어 201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6%로 점차 성장하여 14조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3) 국내 DB산업 시장 전망



〈표 2-1-2〉 국내 DB산업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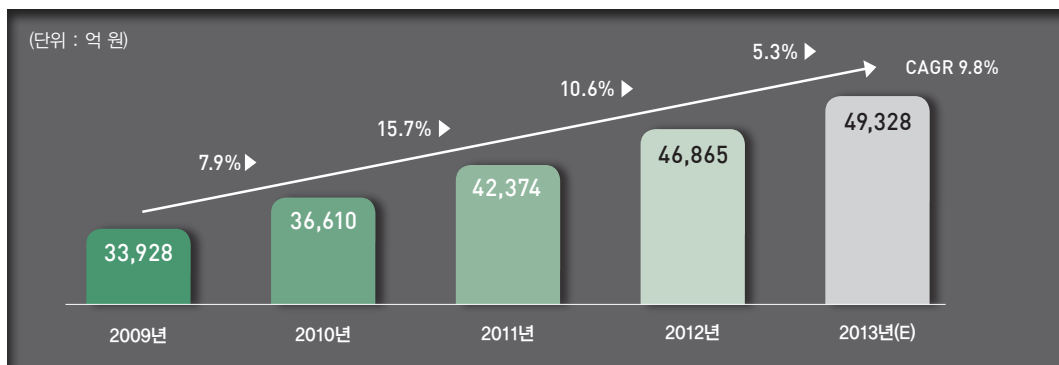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구분	2012년	2013년(E)	2014년(P)	2015년(P)	2016년(P)	2017년(P)	2018년(P)	CAGR ('12-'18)
DB구축	46,865	49,328	51,449	53,765	55,866	57,812	60,153	3.6%
DB컨설팅	1,877	2,092	2,167	2,276	2,374	2,515	2,629	4.9%
DB솔루션	12,326	13,728	15,860	18,202	21,018	22,468	25,319	10.8%
DB서비스	47,315	51,369	52,666	55,036	56,457	58,159	59,994	3.4%
전체	108,383	116,517	122,142	129,279	135,715	140,953	148,094	4.6%

가. DB구축 시장

DB구축 시장은 2012년 4조 6,865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0.6%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4조 9,32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5.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2009년 이래 연평균 성장률 9.8%로 꾸준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1-4) DB구축 전체 시장 규모



〈표 2-1-3〉 DB구축 영역별 전체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자료처리	3,443	36,610	42,374	7,191	6,552	-	-8.9%	17.5%
시스템구축	30,485			39,674	42,776	-	7.8%	8.8%
전체	33,928	36,610	42,374	46,865	49,328	10.6%	5.3%	9.8%

대부분 SI 관련 기업인 DB구축 기업의 총매출은 DB시스템 구축 매출⁶⁾과 기타 시스템 구축 매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DB시스템 구축 매출은 2012년 기업 총매출 대비 22.3%였으며, 2013년은 소폭 증가하여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DB구축 매출 비중

(단위 :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11-‘12)	(‘12-‘13)
DB 시스템 구축	매출	36,610	42,374	46,865	49,328	10.6%	5.3%
	비중	21.8%	18.7%	22.3%	22.8%	3.6%p	0.5%p
기타 시스템 구축	매출	131,573	184,325	163,374	167,391	-11.4%	2.5%
	비중	78.2%	81.3%	77.7%	77.2%	3.6%p	-0.5%p
기업 총 매출		168,183	226,699	210,239	216,719	-7.3%	3.1%

6) DB시스템 구축 매출은 각 기업 총 매출 중 DB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매출이며, 기타시스템 구축은 이 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시스템 설계 등의 사업으로 인한 매출로 구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3년 DB구축 시장은 매출 800억 원 이상의 대형 기업이 그 성장세를 견인하기는 했으나, 100억 원 이상 800억 원 이하 중대형 기업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시장 성장률이 5.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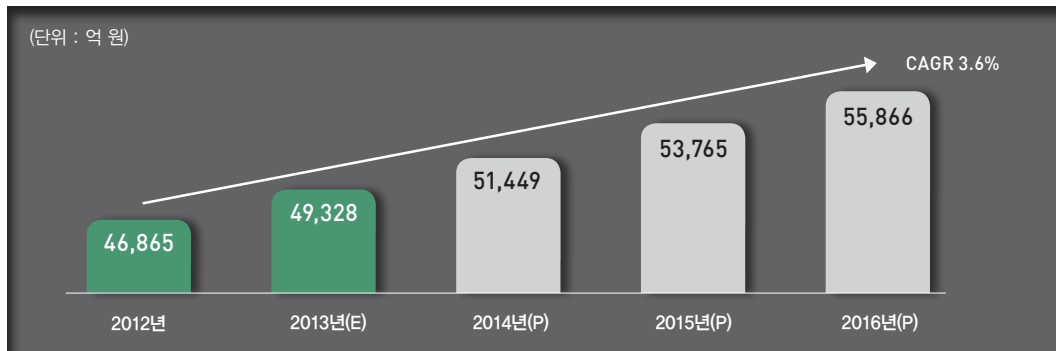
〈표 2-1-5〉 기업 규모별 DB시스템 구축 매출 현황

(단위 : 억 원)

기업규모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11-'12)	('12-'13)
20억 원 미만		1,881	1,782	1,598	1,853	-10.3%	16.0%
100억 원 미만		6,727	6,952	7,090	7,998	2.0%	12.8%
800억 원 미만		6,875	7,825	10,492	10,227	34.1%	-2.5%
800억 원 이상		21,127	25,815	27,685	29,249	7.2%	5.7%
전체		36,610	42,374	46,865	49,328	10.6%	5.3%

그러나 점차 DB시스템 구축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계 획하는 기업들의 관심 또한 지속되면서, 다소 시일은 걸리겠지만 시장 성장률은 점차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따라 향후 DB구축 시장은 2014년에 5조 원 대 진입이 예상되며, 2016년까지 연평균 3.6%의 성장률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5) DB구축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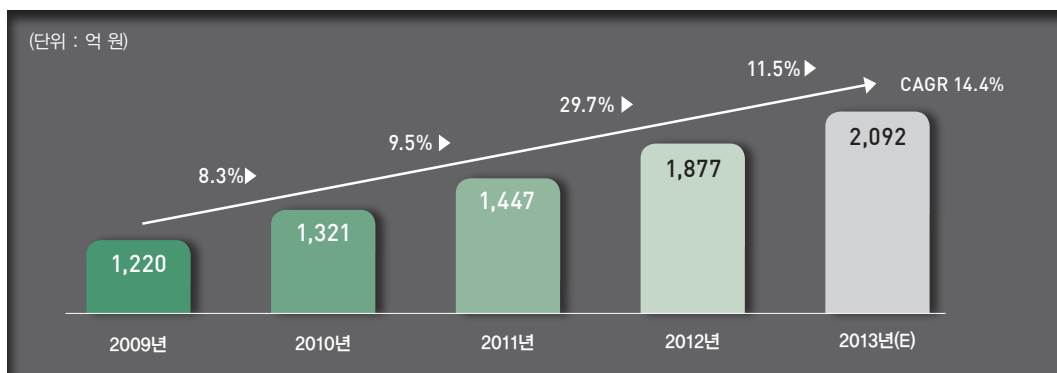


나. DB컨설팅 및 솔루션 시장

1) DB컨설팅 시장 현황

DB컨설팅 시장 규모는 2012년 1,877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9.7%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2,092억 원으 로 2012년 대비 11.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6) DB컨설팅 전체 시장 규모



DB컨설팅 시장 영역별 비중은 마스터 데이터 관리(27.6%), DB운영시스템 개발 컨설팅(19.5%), 데이터 분석(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개 영역의 시장 비중은 2013년 DB컨설팅 전체 시장 규모의 59.5%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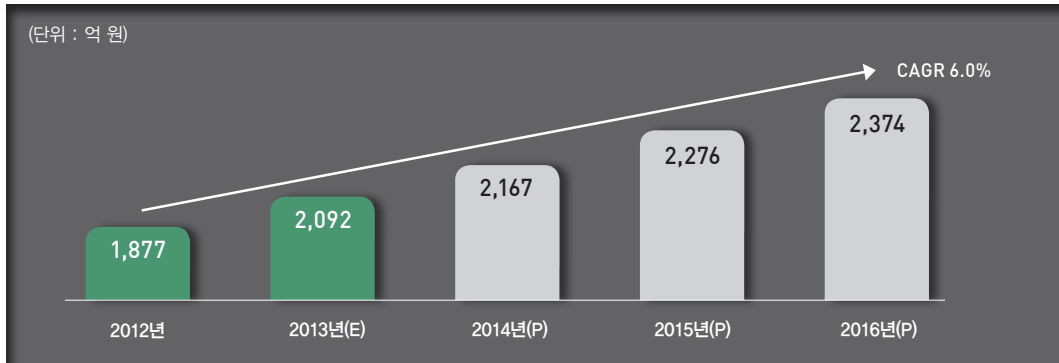
〈표 2-1-6〉 DB컨설팅 영역별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데이터 기획	-	-	-	8,350	9,091
데이터 검색·수집	3,068	4,153	7,980	7,772	8,700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4,975	5,759	12,573	12,059	11,139
데이터 통합	3,923	4,582	7,012	6,016	6,910
데이터 품질	13,977	8,183	15,156	13,364	15,187
마스터 데이터 관리	44,439	49,894	54,018	48,648	57,749
메타데이터 관리	2,254	2,959	6,102	6,672	7,594
DB모니터링·튜닝	3,265	3,617	3,824	3,314	3,306
DB보안	2,553	2,463	3,439	4,499	5,549
DB백업·복구	47	52	0	155	229
데이터 분석	29,129	35,001	20,389	22,962	25,927
데이터 분산처리	-	-	-	3,389	3,980
ECM	4,392	4,961	5,318	5,058	4,370
KMS	9,976	10,437	8,923	8,327	7,982
DB운영시스템 개발	-	-	-	35,867	40,707
기타	-	-	-	1,296	753
전체	121,998	132,061	144,734	187,748	209,173

비록 DB산업 내에서 DB컨설팅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지금까지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받아 향후 2016년까지 연평균 6.0%의 완만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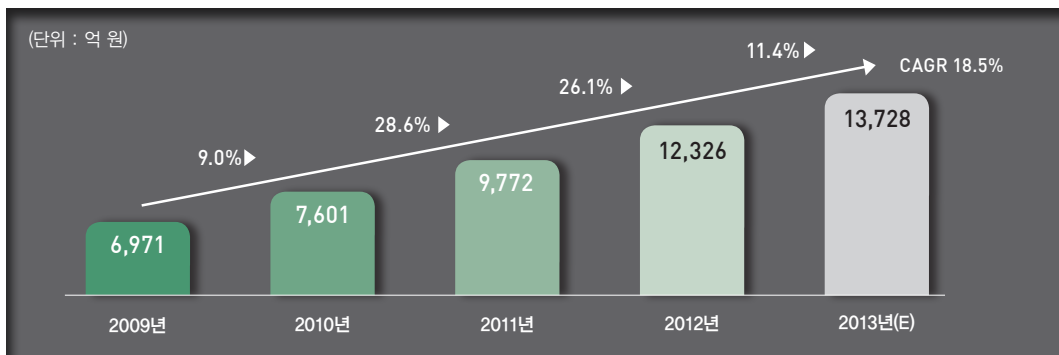
(그림 2-1-7) DB컨설팅 시장 전망



2) DB솔루션 시장 현황

DB솔루션 시장 규모는 2012년 1조 2,326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6.1%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1조 3,72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1.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8) DB솔루션 전체 시장 규모



DB솔루션 시장의 영역별 시장 규모는 DBMS(43.6%), 데이터 분석(11.5%) 순이며, 특히 DBMS 영역은 2013년 DB솔루션 전체 시장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영역은 DB보안 영역이며, 이들 3개 영역이 2013년 DB솔루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핵심 영역이다.

〈표 2-1-7〉 DB솔루션 영역별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데이터 검색·수집	37,332	40,563	48,930	53,859	56,512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12,479	13,354	30,909	37,770	42,604
데이터 통합	11,873	14,480	24,552	29,057	32,875
데이터 품질	14,186	22,350	27,179	47,959	50,850
마스터 데이터 관리	52,024	58,277	68,795	88,903	100,279
메타데이터 관리	16,588	18,140	36,417	48,043	45,942
DB모니터링·튜닝	10,913	12,842	14,755	17,684	18,062
DB보안	26,899	29,479	37,019	61,257	86,130
DB백업·복구	60,740	66,801	75,130	99,303	112,010
데이터 분석	94,125	105,518	127,360	140,106	158,035
데이터 분산처리	—	—	—	5,697	9,076
DBMS	302,069	316,913	427,213	530,131	597,971
ECM	24,108	25,871	28,342	35,587	29,016
KMS	33,784	35,534	30,559	37,231	33,417
전체	697,120	760,122	977,160	1,232,587	1,372,779

DB솔루션 시장은 유지보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2013년은 DB솔루션 시장의 88.9%가 소프트웨어 영역, 나머지 11.1%는 유지보수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의 소프트웨어 영역 규모는 2012년 1조 544억 원으로 2011년 대비 39.2% 성장했고, 2013년은 1조 2,199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5.7% 성장했다. 유지보수 영역의 시장 규모는 2012년 1,782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8.8% 하락했고, 2013년은 1,529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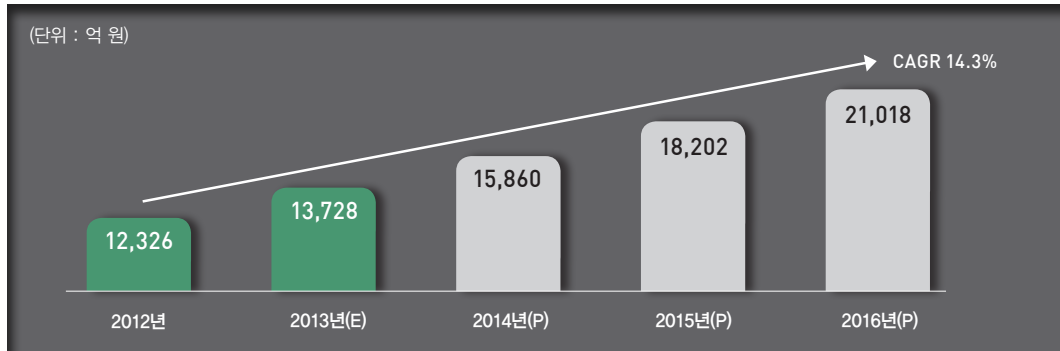
〈표 2-1-8〉 DB솔루션 시장의 SW 및 유지보수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SW	5,446	5,927	7,577	10,544	12,199	39.2%	15.7%	22.3%
	78.1%	78.0%	77.5%	85.5%	88.9%			
유지보수	1,525	1,674	2,194	1,782	1,529	-18.8%	-14.2%	0.1%
	21.9%	22.0%	22.5%	14.5%	11.1%			
전체	6,971	7,601	9,771	12,326	13,728	26.1%	11.4%	18.5%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지보수 시장의 매출 감소는 국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 인상 등의 정부 정책과 업계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이 시장 매출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산 솔루션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해지면서 향후 DB솔루션 시장은 연평균 14.3%로 성장하여 2016년에는 2조 원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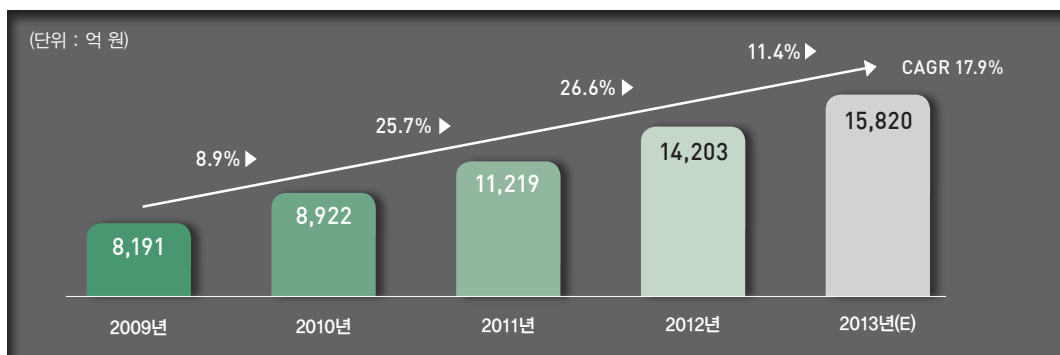
(그림 2-1-9) DB솔루션 시장 전망



3) DB컨설팅·솔루션 영역별 현황

DB컨설팅·솔루션 전체 시장 규모는 2012년 1조 4,20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6.6%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1조 5,82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1.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10) DB컨설팅·솔루션 전체 시장 규모



DB컨설팅·솔루션 시장을 데이터 기획, 데이터 검색·수집 등 16개 영역으로 구분한 영역별 시장 규모는 다음 <표 2-1-9>와 같다. DBMS 영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어서 데이터 분석, 마스터 데이터 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외 대부분의 영역은 3% 안팎의 비중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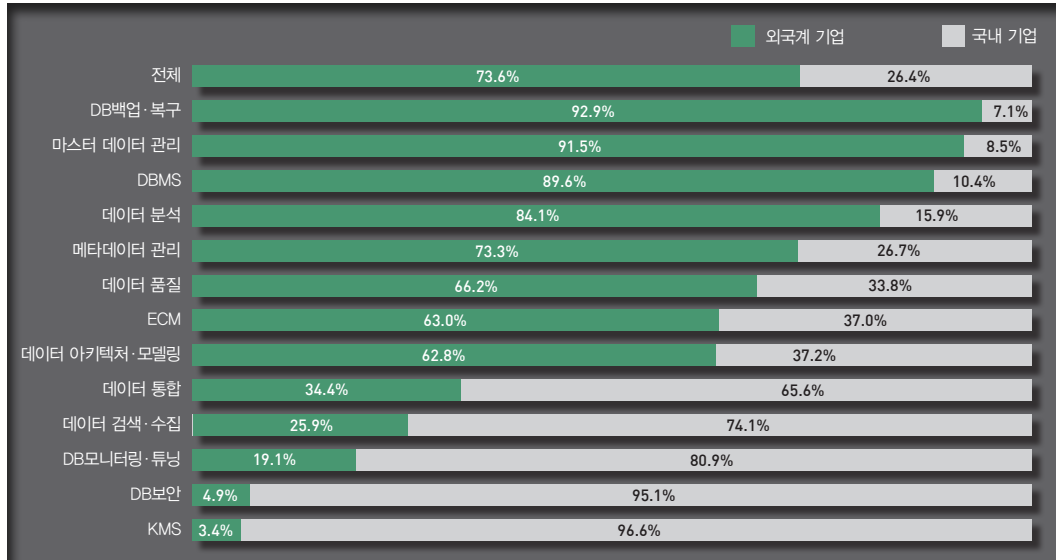
<표 2-1-9> DB컨설팅·솔루션 영역별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데이터 기획	—	—	—	8,350	9,091
데이터 검색·수집	40,400	44,716	56,910	61,631	65,212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17,454	19,113	43,482	49,829	53,743
데이터 통합	15,796	19,062	31,564	35,073	39,785
데이터 품질	28,163	30,533	42,335	61,323	66,037
마스터 데이터 관리	96,463	108,171	122,813	137,551	158,028
메타데이터 관리	18,842	21,099	42,519	54,715	53,536
DB모니터링·튜닝	14,178	16,459	18,579	20,998	21,368
DB보안	29,452	31,942	40,458	65,756	91,679
DB백업·복구	60,787	66,853	75,130	99,458	112,239
데이터 분석	123,254	140,519	147,749	163,068	183,962
데이터 분산처리	—	—	—	9,086	13,056
DBMS	302,069	316,913	427,213	530,131	597,971
ECM	28,500	30,832	33,660	40,645	33,386
KMS	43,760	45,971	39,482	45,558	41,399
DB운영시스템 개발	—	—	—	35,867	40,707
기타	—	—	—	1,296	753
전체	819,118	892,183	1,121,894	1,420,335	1,581,952

2013년 DB컨설팅·솔루션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6.4%로 2012년 24.8% 대비 증가하였으나, 외국계 기업이 우위인 시장 판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11) DB컨설팅·솔루션 영역별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DB컨설팅·솔루션 시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의 금융, 제조,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금융업종 부문에서 최근 4년간 2배가량 증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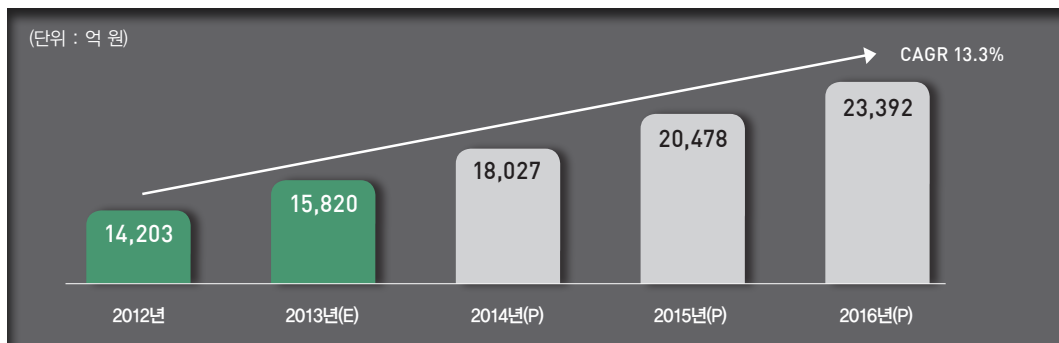
〈표 2-1-10〉 DB컨설팅·솔루션 시장 주요 업종별 사업 현황(매출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공공		203,860	264,954	339,545	348,688
민간	금융	273,560	345,421	449,016	555,352
	제조	184,576	225,988	271,880	299,097
	서비스	230,187	285,530	359,895	378,815
전체		892,183	1,121,893	1,420,335	1,581,952

2013년 DB컨설팅·솔루션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ICT 통합 부처의 출범, 다양한 육성 정책이 구체적으로 계획됨에 따라 성장에 탄력을 받아 성장 정체를 탈피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를 맞이하였다.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에 힘입어 기술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그간 업계의 해외 진출 및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성과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5년 DB컨설팅·솔루션 시장은 2조 원을 웃도는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2-1-12) DB컨설팅·솔루션 시장 전망



가) 데이터 기획

데이터 기획 시장 규모는 2013년 91억 원으로 2012년 84억 원 대비 8.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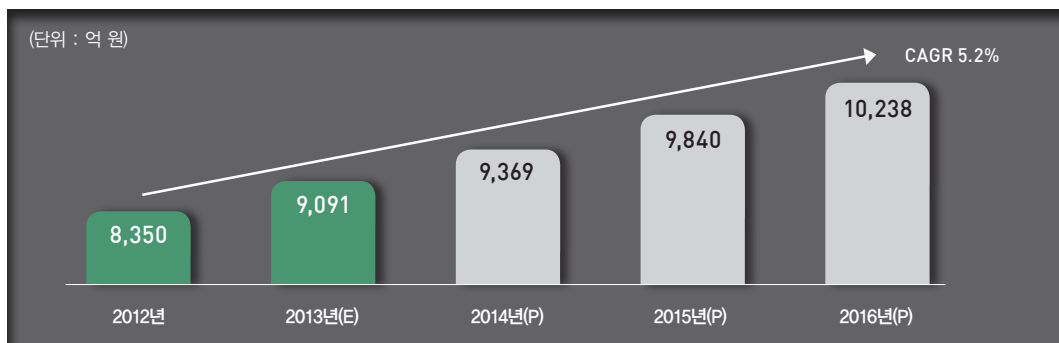
〈표 2-1-11〉 데이터 기획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12년	2013년(E)	증감률('12-'13)
데이터 기획 컨설팅	8,350	9,091	8.9%
전체	8,350	9,091	8.9%

데이터 기획 시장은 주요한 기업 활동 전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종합적인 정보구조 체계의 정립, 그리고 중장기적인 기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영역을 말한다. 이 영역의 시장 규모는 최근 빅데이터 관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 데이터 기획 컨설팅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2013년 DB산업분류 개정 시 새롭게 반영하여 통계를 산출하였다.

(그림 2-1-13) 데이터 기획 시장 전망



데이터 및 DB 활용에 대한 기업의 고민은 데이터 기획 컨설팅 수요로 이어지면서 시장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2016년에는 1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데이터 검색·수집

데이터 검색·수집 시장 규모는 2012년 616억 원으로 2011년 대비 8.3%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65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5.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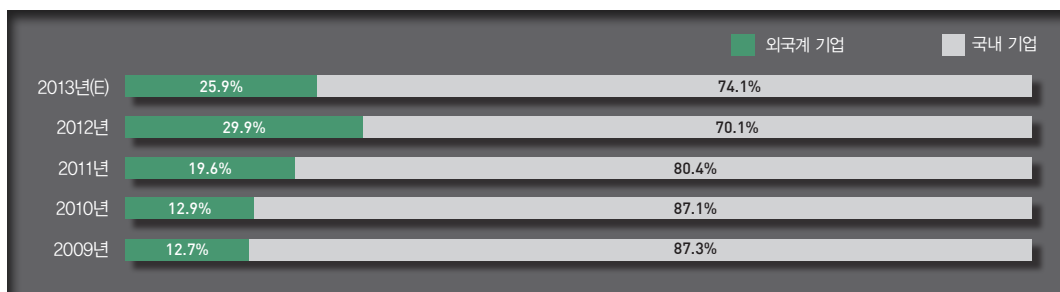
〈표 2-1-12〉 데이터 검색·수집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3,068	4,153	7,980	7,772	8,700	-2.6%	11.9%	29.8%
		7.6%	9.3%	14.0%	12.6%	13.3%			
솔루션	SW	30,423	32,795	35,284	39,889	42,517	13.1%	6.6%	8.7%
		75.3%	73.3%	62.0%	64.7%	65.2%			
	유지보수	6,909	7,769	13,646	13,970	13,994	2.4%	0.2%	19.3%
		17.1%	17.4%	24.0%	22.7%	21.5%			
전체		40,400	44,716	56,910	61,631	65,212	8.3%	5.8%	12.7%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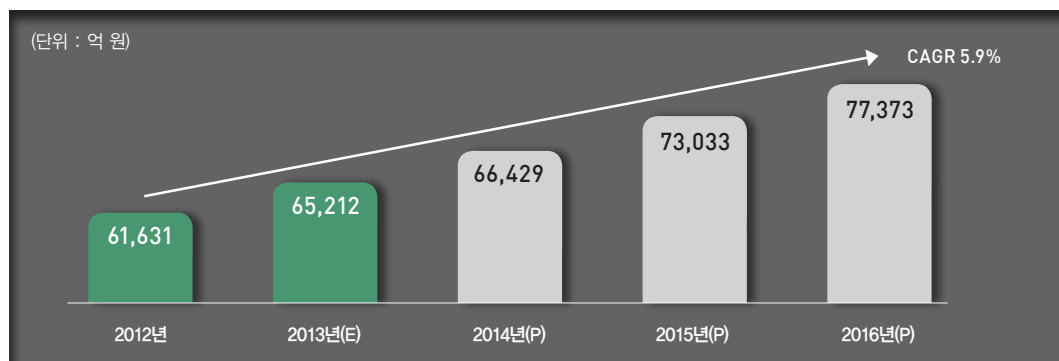
데이터 검색·수집 시장은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분야로서 2013년 국산 점유율이 74.1%로 2012년 대비 다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14) 데이터 검색·수집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데이터 검색·수집 시장은 DB, 웹, SNS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 수집하는 컨설팅 및 솔루션 시장을 말한다. 최근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이슈로 관련 신규 기술이 접목된 솔루션이 개발되면서 이미 포화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검색·수집 시장은 연평균 5.9%의 성장률로 2015년에는 7천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15) 데이터 검색·수집 시장 전망



다)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시장은 2012년 498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4.6% 성장했으며, 2013년은 537억 원으로 2012년 대비 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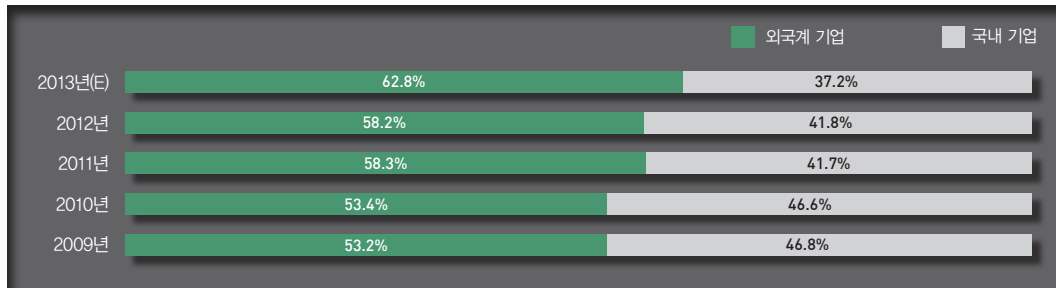
〈표 2-1-13〉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4,975	5,759	12,573	12,059	11,139	-4.1%	-7.6%	22.3%
		28.5%	30.1%	28.9%	24.2%	20.7%			
솔루션	SW	10,423	11,074	25,781	31,360	34,672	21.6%	10.6%	35.0%
		59.7%	57.9%	59.3%	62.9%	64.5%			
	유지보수	2,056	2,280	5,128	6,410	7,932	25.0%	23.8%	40.1%
		11.8%	11.9%	11.8%	12.9%	14.8%			
전체		17,454	19,113	43,482	49,829	53,743	14.6%	7.9%	32.5%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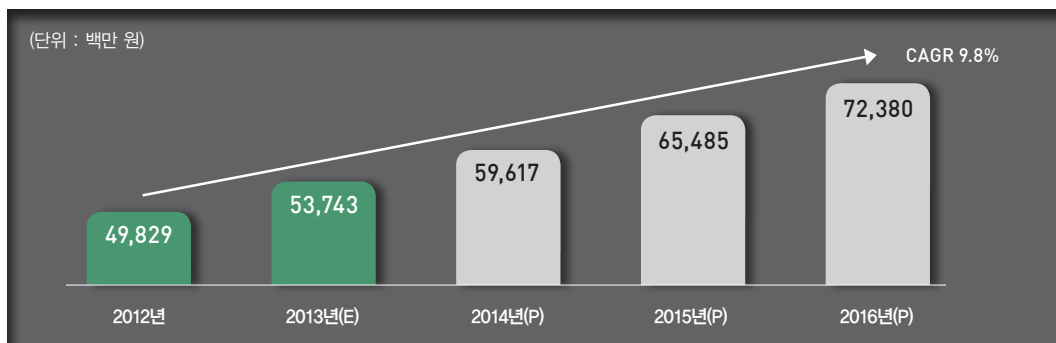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2년 58.2% 수준이었던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이 2013년에는 62.8%로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 및 적극적 마케팅으로 시장을 공략하면서 점차 인지도를 높여감에 따라 향후 시장 판도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림 2-1-16)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데이터 아키텍처란 기업의 전사적(enterprise) 아키텍처의 중요한 하부구조로 데이터 측면에서 기업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망하여 시스템 본질인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관리·설계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데이터 모델링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체계화된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또한 IT 시스템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관리해야 할 데이터 역시 빠른 속도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를 위한 DB모델링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향후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시장은 연평균 9.8%의 높은 성장률로 이어져 2014년 600억 원대 규모가 예상되며, 2016년에는 700억 원을 웃도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17) 데이터 아키텍처·모델링 시장 전망



라) 데이터 통합

데이터 통합 시장 규모는 2012년 351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1.1%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39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3.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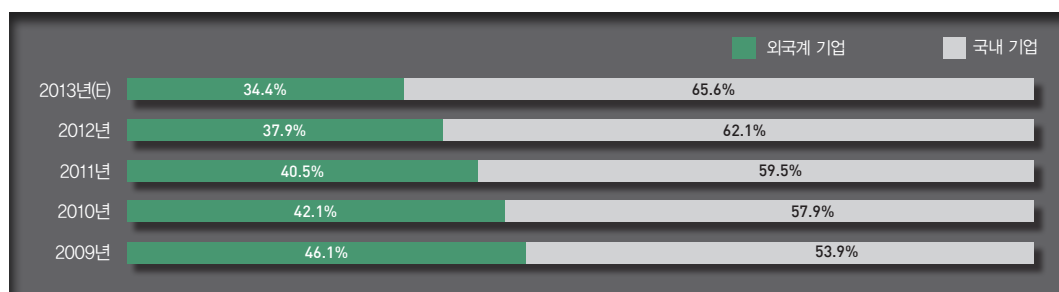
〈표 2-1-14〉 데이터 통합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3,923	4,582	7,012	6,016	6,910	-14.2%	14.9%	15.2%
		24.8%	24.0%	22.2%	17.2%	17.4%			
솔루션	SW	8,272	10,460	18,431	22,568	25,373	22.4%	12.4%	32.3%
		52.4%	54.9%	58.4%	64.3%	63.8%			
	유지보수	3,601	4,020	6,121	6,489	7,502	6.0%	15.6%	20.1%
		22.8%	21.1%	19.4%	18.5%	18.9%			
전체		15,796	19,062	31,564	35,073	39,785	11.1%	13.4%	26.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 시장은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2012년 62.1%에서 2013년 65.6%까지 확대되었으며, 2009년 이후 꾸준히 국내 기업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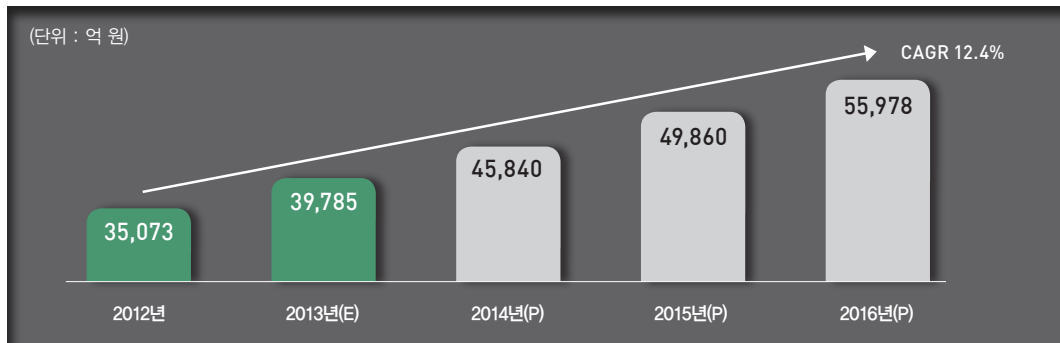
(그림 2-1-18) 데이터 통합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데이터 통합 시장 영역은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단축, 통합 패턴, 비용 및 제공 모델의 최적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측면에서 유연한 기술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의 기술 진화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 제

품이 출시되면서 기술력과 저렴한 비용을 강점으로 이 시장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도 나서고 있다. 이렇듯 시장의 경쟁력이 자극되면서 데이터 통합 시장은 연평균 12.4%라는 높은 성장률로 2015년 500억 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19) 데이터 통합 시장 전망



마) 데이터 품질

데이터 품질시장은 2012년 61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44.9%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66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7.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5〉 데이터 품질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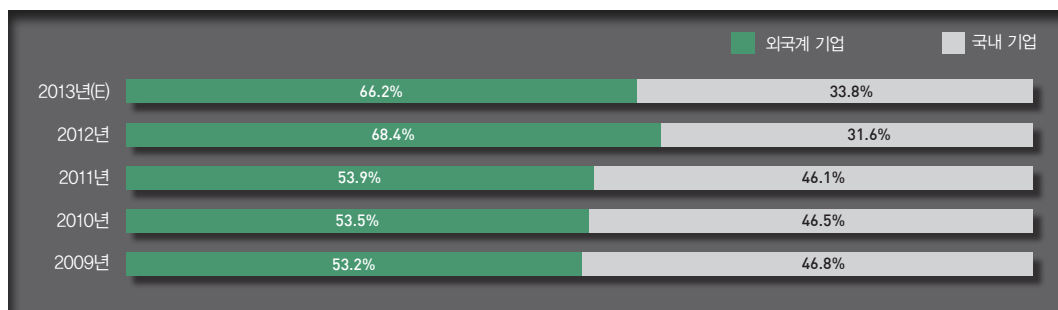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11-'12)	('12-'13)	('09-'13)
컨설팅		13,977	8,183	15,156	13,364	15,187	-11.8%	13.6%	2.1%
		49.6%	26.8%	35.8%	21.8%	23.0%			
솔루션	SW	11,815	18,627	23,115	32,962	33,708	42.6%	2.3%	30.0%
		42.0%	61.0%	54.6%	53.8%	51.0%			
	유지보수	2,371	3,723	4,064	14,997	17,142	269.0%	14.3%	64.0%
		8.4%	12.2%	9.6%	24.5%	26.0%			
전체		28,163	30,533	42,335	61,323	66,037	44.9%	7.7%	23.7%
		100.0%	100.0%	100.0%	100.0%	100.0%			

이 시장의 외국계 시장 점유율은 2013년 66.2%로 2012년 68.4%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값의 정의, 오류 데이터 식별 및 정제를 위한 협의의 품질관리 영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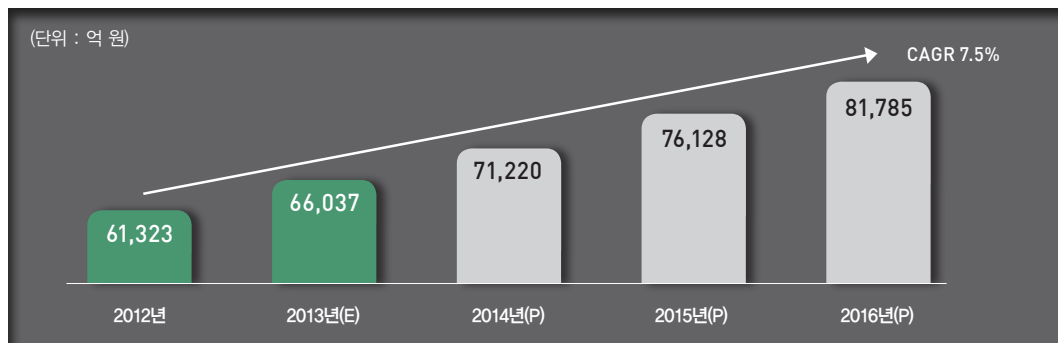
사실상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시장 점유율은 매우 높다. 다만, 본 조사의 데이터 품질 시장은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관리 체계 수립 등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여러 분야로 확대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나 점유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2-1-20) 데이터 품질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최근에는 빅데이터 이슈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이 선결요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국가 차원의 공공데이터 공개·개방에 대한 정책 추진과 맞물려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에는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면서 데이터 품질시장은 연평균 7.5% 성장률로 2014년 700억 원대 규모로 진입하여 2016년 800억 원대 수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1) 데이터 품질 시장 전망



바) 마스터 데이터 관리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장은 2012년 1,376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2.0% 성장했으며, 2013년은 1,58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4.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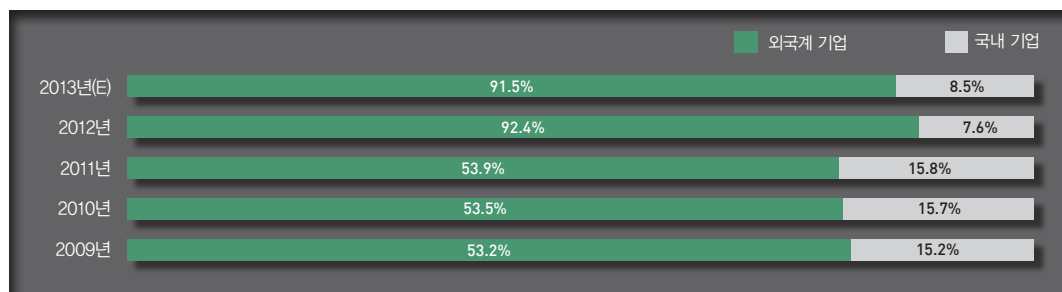
〈표 2-1-16〉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44,439	49,894	54,018	48,648	57,749	-9.9%	18.7%	6.8%
	46.1%	46.1%	44.0%	35.4%	36.5%			
솔루션	SW	29,172	32,589	37,541	52,495	39.8%	11.1%	18.9%
		30.2%	30.1%	30.6%	38.2%			
	유지보수	22,851	25,688	31,254	36,408	16.5%	15.3%	16.4%
		23.7%	23.7%	25.4%	26.6%			
전체	96,463	108,171	122,813	137,551	158,028	12.0%	14.9%	13.1%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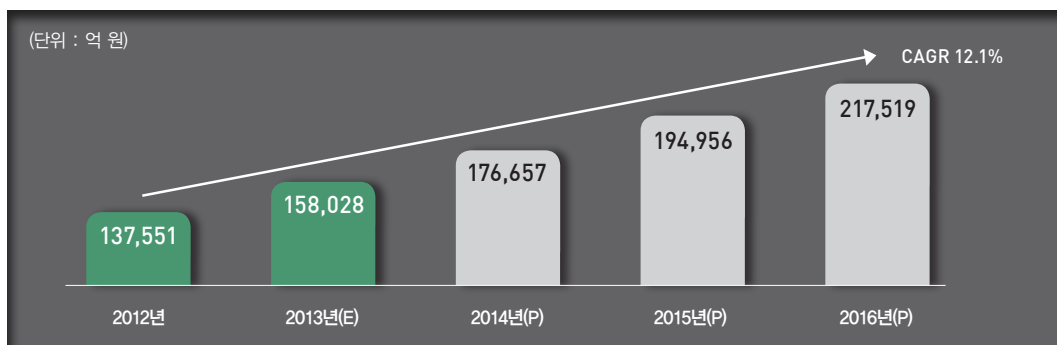
이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서, 외국계 기업 점유율이 2012년에는 92.4%이었으며, 2013년에는 소폭 하락한 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2)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마스터 데이터 시스템은 주로 제조·유통 분야에서 품목코드, 공급업체, 부품 등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해 왔으나, 최근에는 금융, 통신,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이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장의 성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이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2.1%로 2016년 2천억 원대 시장 규모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3)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장 전망



사)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시장은 2012년 547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8.7%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535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7〉 메타데이터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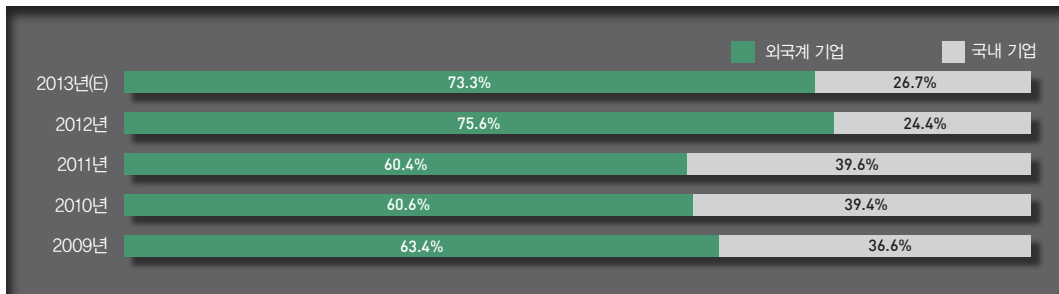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2,254	2,959	6,102	6,672	7,594	9.3%	13.8%	35.5%
		12.0%	14.0%	14.4%	12.2%	14.2%			
솔루션	SW	11,468	12,840	24,312	35,614	31,946	46.5%	-10.3%	29.2%
		60.9%	60.9%	57.2%	65.1%	59.7%			
	유지보수	5,120	5,300	12,105	12,429	13,996	2.7%	12.6%	28.6%
		27.2%	25.1%	28.5%	22.7%	26.1%			
전체		18,842	21,099	42,519	54,715	53,536	28.7%	-2.2%	29.8%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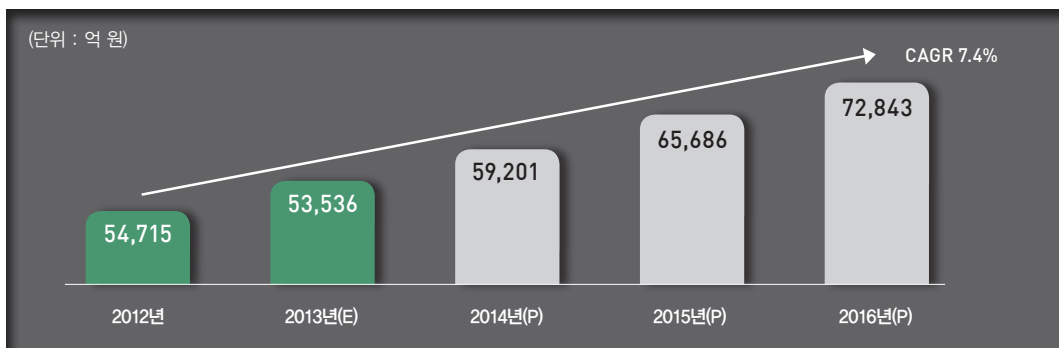
메타데이터 시장은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국내 기업에 비해 높은 분야이다. 2012년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75.6%로 2011년 대비 대폭 증가한 반면, 2013년에는 73.3%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7.4%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700억 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4) 메타데이터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그림 2-1-25) 메타데이터 시장 전망



아) DB모니터링·튜닝

DB모니터링·튜닝 시장은 2012년 21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3.0%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214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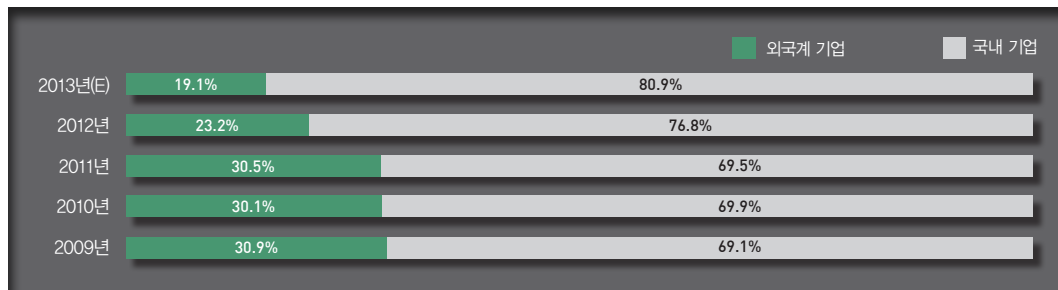
〈표 2-1-18〉 DB모니터링·튜닝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3,265	3,617	3,824	3,314	3,306	-13.3%	-0.2%	0.3%
	23.0%	22.0%	20.6%	15.8%	15.5%			
솔루션	SW	8,265	9,379	10,251	12,426	21.2%	3.3%	11.6%
		58.3%	57.0%	55.2%	59.2%			
	유지보수	2,648	3,463	4,504	5,258	16.7%	-0.6%	18.5%
		18.7%	21.0%	24.2%	24.5%			
전체	14,178	16,459	18,579	20,998	21,368	13.0%	1.8%	10.8%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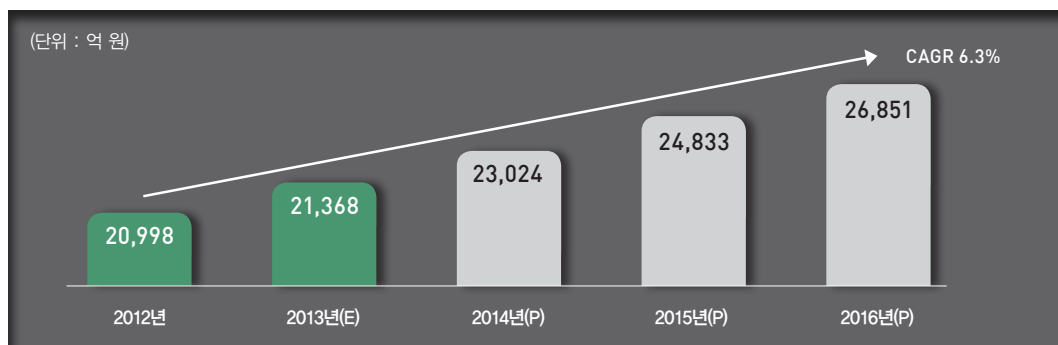
DB모니터링·튜닝 시장은 국내 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비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2012년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76.8%였고, 2013년에는 80.9%로 더욱 높아졌다.

(그림 2-1-26) DB모니터링·튜닝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DB모니터링·튜닝 시장은 현재 성숙기에 있는 시장으로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3%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200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7) DB모니터링·튜닝 시장 전망



자) DB보안

DB보안 시장은 2012년 658억 원으로 2011년 대비 62.5%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917억 원으로 2012년 대비 39.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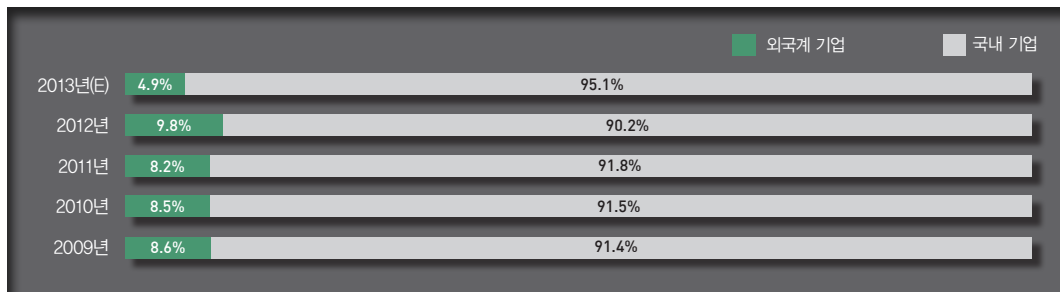
〈표 2-1-19〉 DB보안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2,553	2,463	3,439	4,499	5,549	30.8%	23.3%	21.4%
		8.7%	7.7%	8.5%	6.8%	6.1%			
솔루션	SW	22,122	23,531	31,638	53,222	74,587	68.2%	40.1%	35.5%
		75.1%	73.7%	78.2%	80.9%	81.4%			
	유지보수	4,777	5,948	5,381	8,035	11,543	49.3%	43.7%	24.7%
		16.2%	18.6%	13.3%	12.2%	12.6%			
전체		29,452	31,942	40,458	65,756	91,679	62.5%	39.4%	32.8%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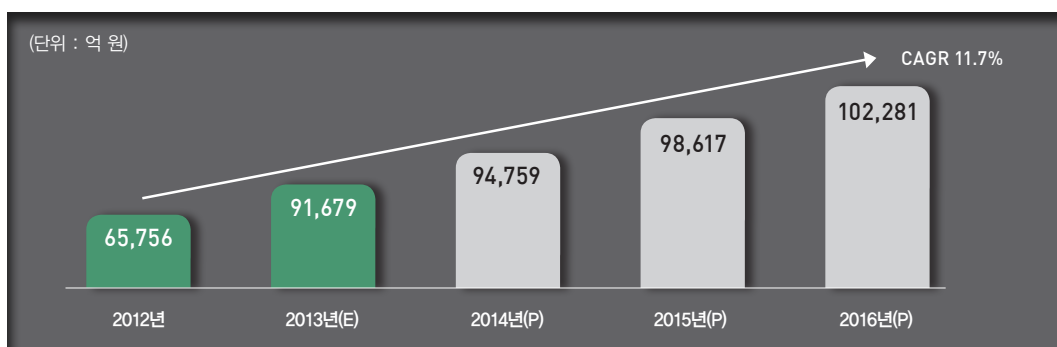
접근제어, 암호화, 보안감사 등의 DB보안 시장은 국내 기업에 의해 견인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2012년 국내 기업의 점유율은 90.2%로 2011년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2013년에는 95.1%로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림 2-1-28) DB보안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DB보안 시장은 아직 그 규모가 작지만, 국내 기업 간 가격 경쟁 및 외국계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작은 국내 DB보안 시장을 벗어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 규모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로 DB보안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11.7%의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하여 1,000억 원대 규모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9) DB보안 시장 전망



차) DB백업·복구

DB백업·복구 시장은 2012년 995억 원으로 2011년 대비 32.4%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1,12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2.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0〉 DB백업·복구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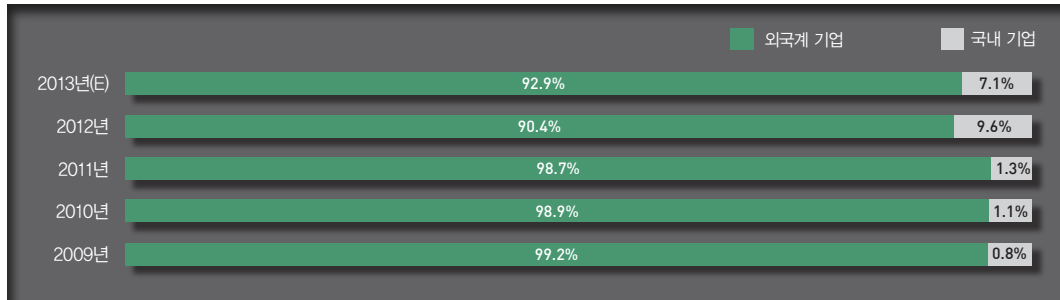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47	52	0	155	229	—	47.7%	48.6%
		0.1%	0.1%	0.0%	0.2%	0.2%			
솔루션	SW	47,813	52,118	60,855	80,814	90,378	32.8%	11.8%	17.3%
		78.7%	78.0%	81.0%	81.3%	80.5%			
	유지보수	12,927	14,683	14,275	18,489	21,632	29.5%	17.0%	13.7%
		21.3%	22.0%	19.0%	18.6%	19.3%			
전체		60,787	66,853	75,130	99,458	112,239	32.4%	12.9%	16.6%
		100.0%	100.0%	100.0%	100.0%	100.0%			

DB백업·복구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이 2012년에는 90.4%였으며, 2013년에는 92.9%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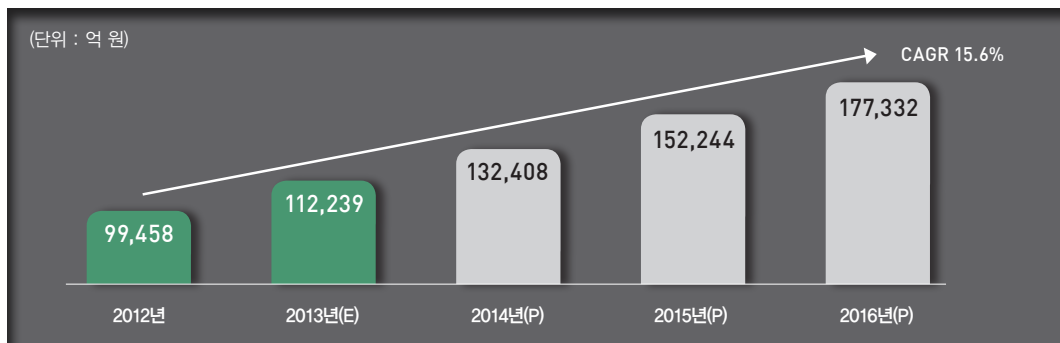
빅데이터 트렌드에 따라 하둡(Hadoop), 비정형 DB가 중요해지고, 오라클(Oracle) DB를 대체하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DB백업·복구 솔루션 또한 다양한 DB와 연동 가능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DB백업·복구 솔루션의 호환성을 향상시킨 제품이 출시되는 등 업계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 2-1-30) DB백업·복구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이에 DB백업·복구 시장은 연평균 15.6%로 성장하여 2014년에는 1,300억 원, 2016년에는 1,700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진입할 것이라 전망된다.

(그림 2-1-31) DB백업·복구 시장 전망



카) 데이터 분석

2013년부터 개편된 분류에 따라 기존 BI와에 빅데이터 분석 시장을 포괄하는 데이터 분석 시장은 2012년 1,631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0.4%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1,84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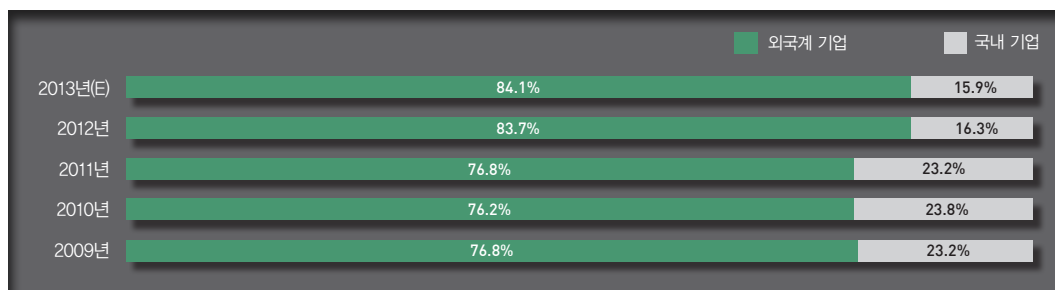
〈표 2-1-21〉 데이터 분석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29,129	35,001	20,389	22,962	25,927	12.6%	12.9%	-2.9%
		23.6%	24.9%	13.8%	14.1%	14.1%			
솔루션	SW	74,177	84,068	111,108	131,865	148,760	18.7%	12.8%	19.0%
		60.2%	59.8%	75.2%	80.9%	80.9%			
	유지보수	19,948	21,450	16,252	8,241	9,275	-49.3%	12.5%	-17.4%
		16.2%	15.3%	11.0%	5.1%	5.0%			
전체		123,254	140,519	147,749	163,068	183,962	10.4%	12.8%	10.5%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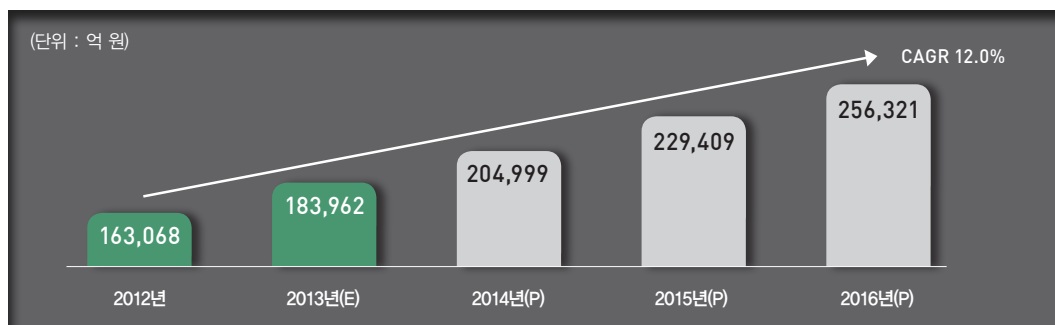
이 시장은 2012년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83.7%를 기록했으며, 2013년은 84.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국내 기업에 비해 외국계 기업이 높은 비중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림 2-1-32) 데이터 분석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데이터 분석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2.0%로 예상되며, 2014년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33) 데이터 분석 시장 전망



타) 데이터 분산 처리

데이터 분산 처리 시장은 2013년 131억 원으로 2012년 91억 원 대비 4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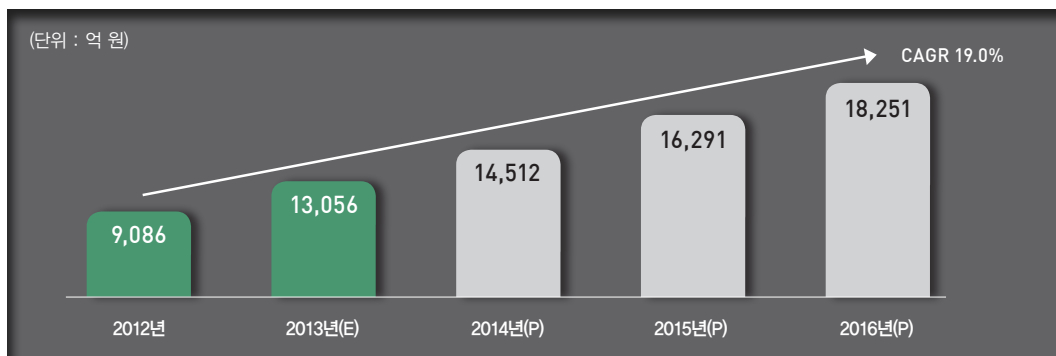
〈표 2-1-22〉 데이터 분산 처리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12년	2013년(E)	증감률('12-'13)
컨설팅		3,389	3,980	17.4%
		37.3%	30.5%	
솔루션	SW	3,874	6,172	59.3%
		42.6%	47.3%	
	유지보수	1,823	2,904	59.3%
		20.1%	22.2%	
전체		9,086	13,056	43.7%
		100.0%	100.0%	

데이터 분산 처리 시장은 빅데이터 이슈로 인해 나타난 신생 시장으로 2016년까지 연평균 19.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약 200억 원 규모의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34) 데이터 분산 처리 시장 전망



파) DBMS

DBMS 시장은 2012년 5,301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4.1%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5,98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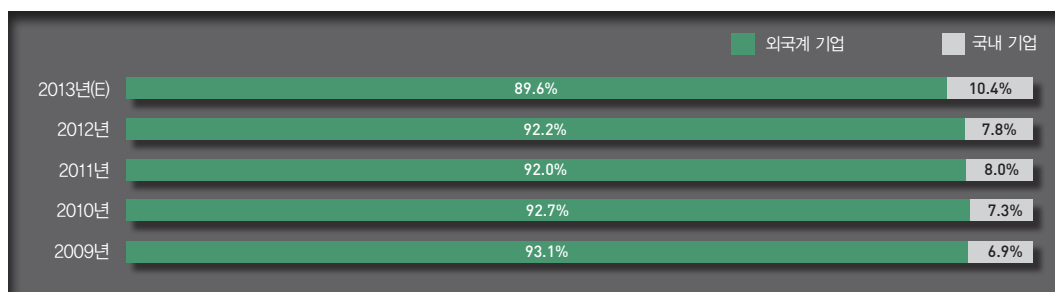
〈표 2-1-23〉 DBMS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솔루션	SW	241,863	253,138	359,028	471,788	567,605	31.4%	20.3%	23.8%
		80.1%	79.9%	84.0%	89.0%	94.9%			
	유지보수	60,206	63,775	68,185	58,343	30,366	-14.4%	-48.0%	-15.7%
		19.9%	20.1%	16.0%	11.0%	5.1%			
전체		302,069	316,913	427,213	530,131	597,971	24.1%	12.8%	18.6%
		100.0%	100.0%	100.0%	100.0%	100.0%			

DBMS 시장은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분야이다. 2012년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은 92.2%였으나, 2013년에는 89.6%로 다소 감소하고, 국내 기업 점유율이 10.4%로 증가하면서 최초로 두 자리 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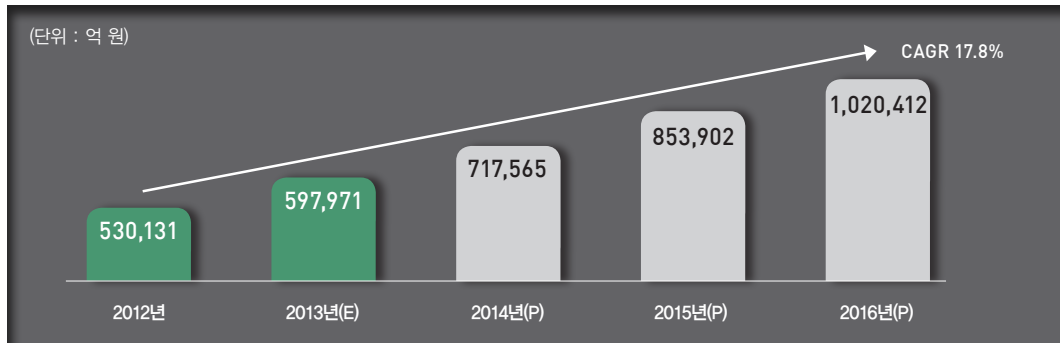
(그림 2-1-35) DBMS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국내 DBMS 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 고객 수요에 맞춘 제품 다양화, 협업 활동 등을 통해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타 업체와 컨설팅, 관리 도구(tool), 보안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외 업체들이 DB역량을 강화하면서 오라클(Oracle)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의 윈백(win back)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국산 DBMS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산 DBMS의 성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빅데이터 저장·적재 관련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DBMS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BMS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7.8%,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며 1조 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1-36) DBMS 시장 전망



하) ECM

ECM(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시장은 2012년 406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0.8% 성장했으나 2013년에는 334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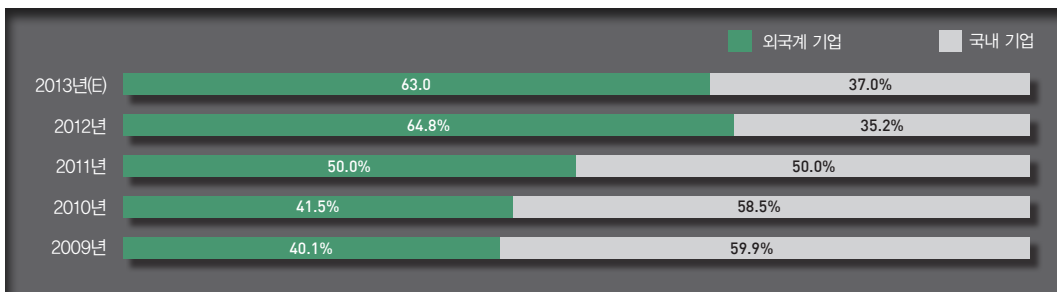
〈표 2-1-24〉 ECM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4,392	4,961	5,318	5,058	4,370	-4.9%	-13.6%	-0.1%
		15.4%	16.1%	15.8%	12.4%	13.1%			
솔루션	SW	20,290	22,173	24,505	31,255	25,250	27.5%	-19.2%	5.6%
		71.2%	71.9%	72.8%	76.9%	75.6%			
	유지보수	3,818	3,698	3,837	4,332	3,766	12.9%	-13.1%	-0.3%
		13.4%	12.0%	11.4%	10.7%	11.3%			
전체		28,500	30,832	33,660	40,645	33,386	20.8%	-17.9%	4.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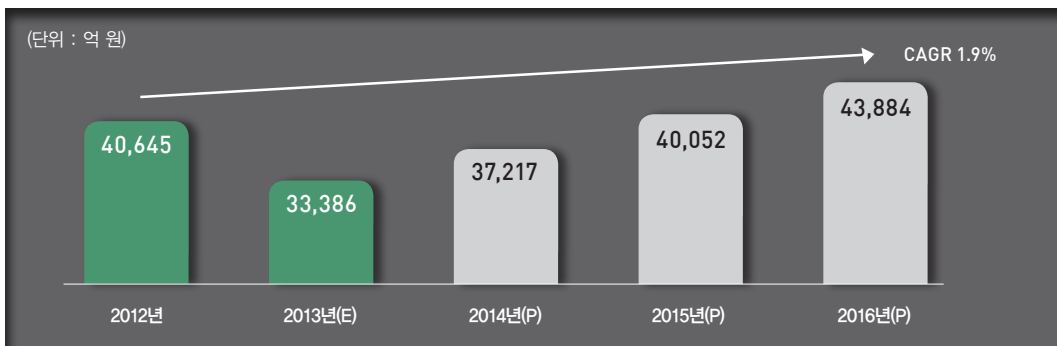
ECM 시장은 2010년까지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외국계 기업에 비해 조금 높았으나, 2012년에는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역전되었고 2013년에도 이러한 구도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7) ECM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ECM은 그동안 이메일이나 보고서 등 기업 업무 관련 콘텐츠를 저장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기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자료와 업무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까지 관리 대상으로 구분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화, 종이문서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ECM 시장은 향후 클라우드와 모바일이라는 두 가지 축에 접목되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6년까지 연평균 1.9% 수준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38) ECM 시장 전망



가) KMS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시장은 2012년 456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5.4%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414억 원으로 2012년 대비 9.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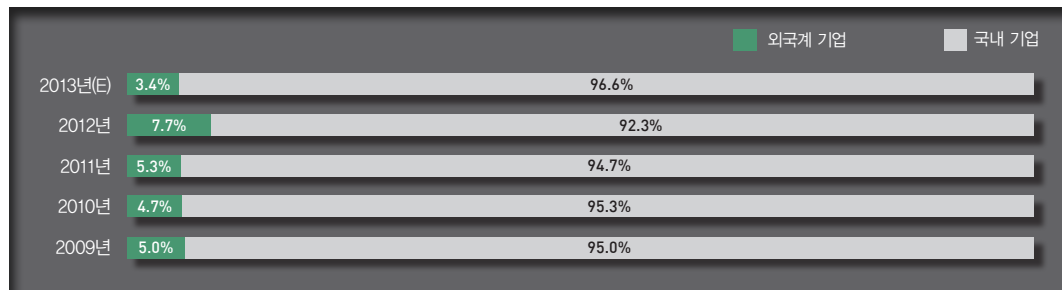
〈표 2-1-25〉 KMS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컨설팅		9,976	10,437	8,923	8,327	7,982	-6.7%	-4.1%	-5.4%
		22.8%	22.7%	22.6%	18.3%	19.3%			
솔루션	SW	28,585	29,888	25,584	30,951	27,051	21.0%	-12.6%	-1.4%
		65.3%	65.0%	64.8%	67.9%	65.3%			
	유지보수	5,199	5,646	4,975	6,280	6,366	26.2%	1.4%	5.2%
		11.9%	12.3%	12.6%	13.8%	15.4%			
전체		43,760	45,971	39,482	45,558	41,399	15.4%	-9.1%	-1.4%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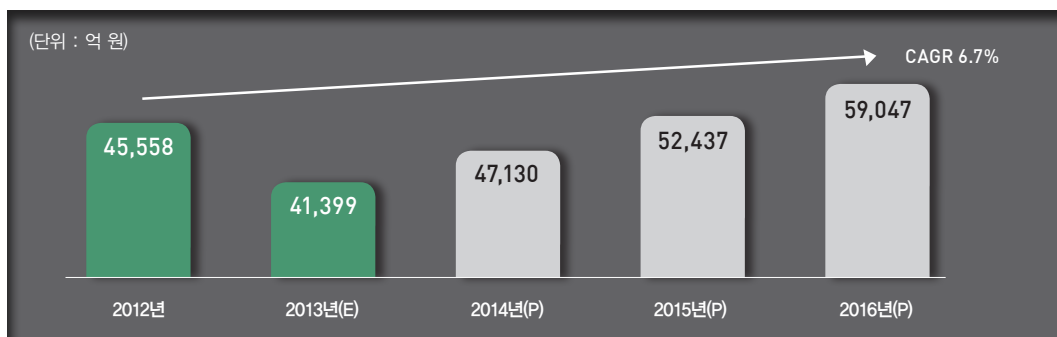
KMS 시장은 국내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2012년에는 92.3%, 2013년에는 96.6%로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9) KMS 시장 점유율(외국계 기업 vs. 국내 기업)



사실상 KMS 시장은 최근 4년 간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력을 회복할 만한 획기적인 사업모델이 발굴되지 않는다면 KMS 업계는 정체된 시장 규모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40) KMS 시장 전망



너) DB운영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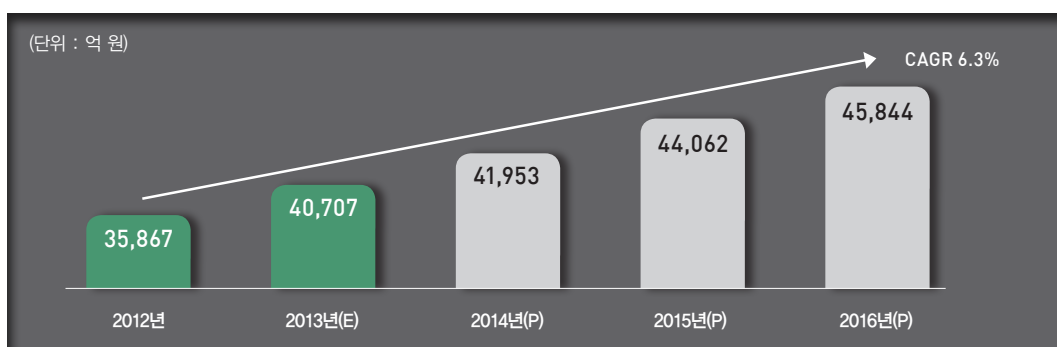
DB운영 시스템 개발 시장은 2013년 407억 원으로 2012년 359억 원 대비 1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까지 연평균 6.3%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400억 원대 시장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6〉 DB운영 시스템 개발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중분류	2012년	2013년(E)	증감률('12-'13)
DB운영 시스템 개발 컨설팅	35,867	40,707	13.5%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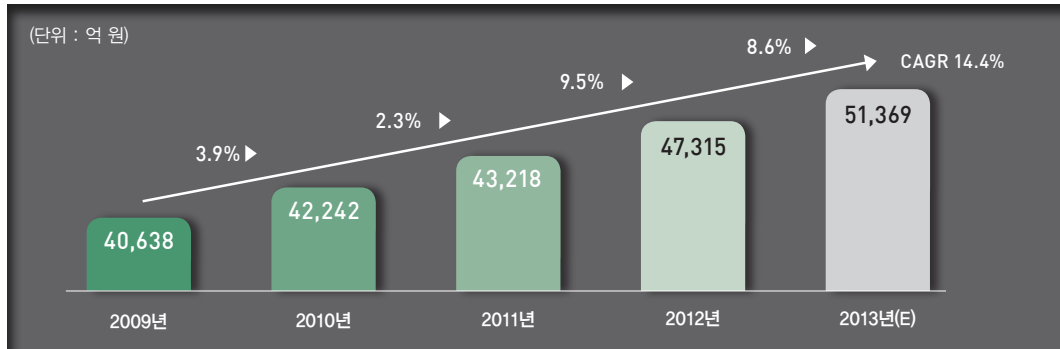
(그림 2-1-41) DB운영 시스템 개발 시장 전망



다. DB서비스 시장

DB서비스 시장은 2012년 4조 7,315억 원으로 2011년 대비 9.5%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5조 1,369억 원으로 2012년 대비 8.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2) DB서비스 시장 규모



DB서비스 시장을 서비스 영역별 시장 규모로 살펴보면, 원천DB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 영역은 전체 DB서비스 시장 매출의 85.2%, 데이터 가공·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분석 서비스 영역은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7〉 DB서비스 영역별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E)	증감률('12-'13)
정보 제공 서비스	40,015	43,757	9.4%
	84.6%	85.2%	
정보 분석 서비스	7,299	7,612	4.3%
	15.4%	14.8%	
전체	47,315	51,369	8.6%
	100.0%	100.0%	

사업 모델별로 살펴보면, 정보서비스 시장은 2013년 2조 8,619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2.5% 성장하였고, 광고 시장은 2013년 2조 2,75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4.0%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28〉 DB서비스 사업 모델별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정보서비스	21,649	21,726	22,261	25,435	28,619	14.3%	12.5%	7.2%
	53.3%	51.4%	51.5%	53.8%	55.7%			
광고	18,989	20,515	20,957	21,880	22,750	4.4%	4.0%	4.6%
	46.7%	48.6%	48.5%	46.2%	44.3%			
전체	40,638	42,241	43,218	47,315	51,369	9.5%	8.6%	6.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업 규모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미만 영세기업의 비중은 67.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 비중은 전체 DB서비스 시장의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50억 원 이상 대형 기업 비중은 12.1%에 불과하나 매출 비중은 전체 DB서비스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당 매출 규모로 비교해보면 2013년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 대형 기업은 168억 원, 10억 미만 영세기업은 1.7억 원으로 영세 기업당 매출액이 대형 기업당 매출액의 1% 수준에 그쳐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29〉 기업 규모별 DB서비스 기업당 매출

(단위 : 개, 억 원)

기업 총 매출	기업 수 (‘12-‘13기준)	2012년		2013년(E)	
		매출액	기업당매출액	매출액	기업당매출액
10억 미만	1,358	1,940	1.4	2,322	1.7
	67.8%	4.1%	6.1%	4.5%	6.7%
50억 미만	293	4,594	15.7	4,852	16.6
	14.6%	9.7%	66.4%	9.4%	64.6%
30억 미만	110	3,324	30.2	3,347	30.4
	5.5%	7.0%	128.0%	6.5%	118.7%
50억 이상	243	37,457	154.1	40,848	168.1
	12.1%	79.2%	652.9%	79.5%	655.8%
전체	2,004	47,315	23.6	51,369	25.6
	100.0%	100.0%	100.0%	100.0%	100.0%

DB서비스 주제에 따라 11개 분야로 분류한 주제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전 영역에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신용·재무 분야는 2012년 대비 19.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문화·예술 분야와 행정·법률 분야가 18.0%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포털 분야 매출 규모는 2013년 1조 5,95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8.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30〉 주제 분야별 DB서비스 매출

(단위 : 억 원)

주제분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GR (‘09-‘13)
							(‘11-‘12)	(‘12-‘13)	
교육·훈련	매출	—	—	—	3,725	3,892	—	4.5%	4.5%*
	시장 점유율	—	—	—	7.9%	7.6%			
경영·비즈니스	매출	3,710	2,406	2,361	2,526	2,913	7.0%	15.3%	-5.9%
	시장 점유율	9.1%	5.7%	5.5%	5.3%	5.7%			
신용·재무	매출	4,685	3,091	3,242	3,025	3,628	-6.7%	19.9%	-6.2%
	시장 점유율	11.5%	7.3%	7.5%	6.4%	7.1%			
취업·창업	매출	—	—	—	1,032	1,087	—	5.3%	5.3%*
	시장 점유율	—	—	—	2.2%	2.1%			
통계	매출	—	—	—	245	285	—	16.3%	16.3%*
	시장 점유율	—	—	—	0.5%	0.6%			
문화·예술	매출	3,223	3,619	3,700	3,998	4,716	8.1%	18.0%	10.0%
	시장 점유율	7.9%	8.6%	8.6%	8.4%	9.2%			
생활	매출	5,951	7,843	8,264	7,702	7,858	-6.8%	2.0%	7.2%
	시장 점유율	14.6%	18.6%	19.1%	16.3%	15.3%			
뉴스	매출	8,756	8,969	9,581	9,567	10,090	-0.1%	5.5%	3.6%
	시장 점유율	21.5%	21.2%	22.2%	20.2%	19.6%			
포털	매출	13,661	15,525	15,245	14,672	15,958	-3.8%	8.8%	4.0%
	시장 점유율	33.6%	36.8%	35.3%	31.0%	31.1%			
학술	매출	364	436	453	417	461	-7.9%	10.6%	6.1%
	시장 점유율	0.9%	1.0%	1.0%	0.9%	0.9%			
행정·법률	매출	288	353	372	339	400	-8.9%	18.0%	8.6%
	시장 점유율	0.7%	0.8%	0.9%	0.7%	0.8%			
기타	매출	—	—	—	69	80	—	15.9%	15.9%*
	시장 점유율	—	—	—	0.1%	0.2%			
전체	매출	40,638	42,242	43,218	47,315	51,369	9.5%	8.6%	6.0%
	시장 점유율	100.0%	100.0%	100.0%	100.0%	100.0%			

* 연평균 성장률(‘09년~‘13년)을 연간 성장률(‘12년~‘13년)로 대체함

서비스 기반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기반 서비스가 2012년 3조 489억 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3년에는 3조 5,375억 원으로 16.0% 성장하였다.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는 2012년에 1조 3,866억 원, 2013년에는 1조 1,580억 원으로 16.5% 감소하였다. 모바일 기반 서비스는 2012년 2,961억 원에서 2013년 4,414억 원으로 49.1%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모바일 기반 서비스는 아직 과도기로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미디어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기반 서비스에 특화된 방식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된다면 향후 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오프라인 시장 규모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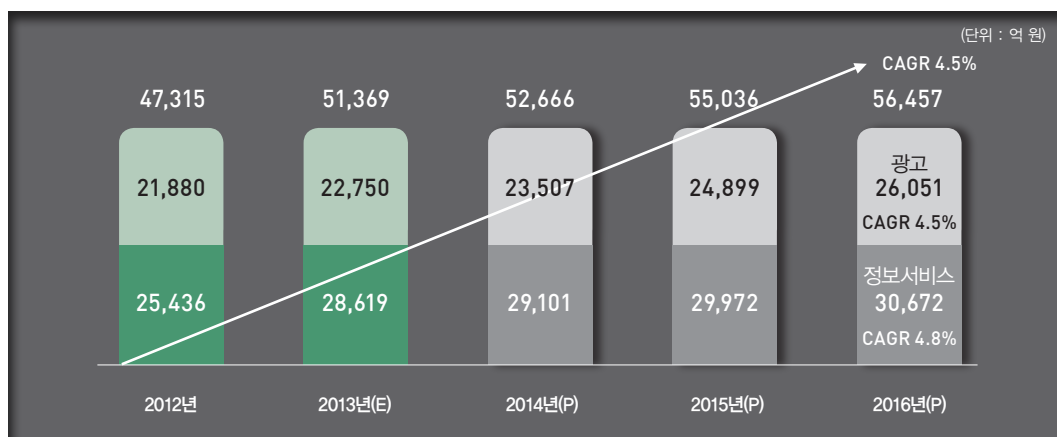
〈표 2-1-31〉 DB서비스 기반별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증감률
				('11 - '12)	('12 - '13)
모바일	2,544	2,961	4,414	16.4%	49.1%
	5.9%	6.3%	8.6%		
온라인	27,756	30,489	35,375	9.8%	16.0%
	64.2%	64.4%	68.9%		
오프라인	12,917	13,866	11,580	7.3%	-16.5%
	29.9%	29.3%	22.5%		
전체	43,217	47,315	51,369	9.5%	8.6%
	100.0%	100.0%	100.0%		

2013년 DB서비스 시장은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기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직 제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다룬 정보 분석 서비스가 출시되지 못했으며, 성공사례조차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고급 정보 분석 서비스로 진화되기까지 획기적인 기술과 사업모델 발굴은 시간 문제이며, 곧 안정적인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정보 분석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DB서비스 시장 매출 실적은 정보서비스와 광고 전반에 걸쳐 소폭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5년에는 5조 5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43) DB서비스 시장 전망



2. 인력 현황

2013년 DB산업 전체 종사자수는 총 25만 789명으로 2012년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DB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DB직무 종사자는 6만 3,739명으로 2012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DB산업 총 종사자의 2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표 2-1-32〉 DB산업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종사자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3년(E)	('11 - '12)	('12 - '13)
DB직무	58,103	61,469	63,739	5.8%	3.7%
	26.3%	25.8%	25.4%		
DB직무 외	162,537	177,238	187,050	9.0%	5.5%
	73.7%	74.2%	74.6%		
전체	220,640	238,707	250,789	8.2%	5.1%
	100.0%	100.0%	100.0%		

DB산업의 시장 영역별 종사자 수는 DB서비스 영역이 14만 9,5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DB구축 시장이 8만 6,517명, DB컨설팅 및 솔루션 시장이 1만 4,753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DB컨설팅 및 솔루션 영역이 10.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DB구축 시장은 9.1%, DB서비스 시장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3〉 DB산업 시장 영역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종사자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3년(E)	('11-'12)	('12-'13)
DB구축	73,483	79,331	86,517	8.0%	9.1%
	33.3%	33.2%	34.5%		
DB컨설팅·솔루션	10,634	13,352	14,753	25.6%	10.5%
	4.8%	5.6%	5.9%		
DB서비스	136,523	146,024	149,519	7.0%	2.4%
	61.9%	61.2%	59.6%		
전체	220,640	238,707	250,789	8.2%	5.1%
	100.0%	100.0%	100.0%		

7) DB산업의 직무는 DB의 직접적인 운영, 관리, DB관련 컨설팅 등의 직무(이하 DB직무)와 경영관리나 DB와 무관한 교육, 컨설팅, 연구 및 개발 등의 직무(이하 DB직무 외)로 구분

2013년 DB직무 종사자 총 6만 3,739명 중 42.4%에 해당하는 2만 7,053명이 DB구축 시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각 시장 부문별 전체 종사자 수 대비 DB직무 종사자 비중은 DB컨설팅·솔루션 시장이 71.5%인 1만 55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34〉 DB산업 부문별·직무별 종사자 현황(2013년)

(단위 : 명)

구분	DB직무 종사자		DB직무 외 종사자		총 종사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DB구축	27,053	31.3%	59,464	68.7%	86,517	100.0%
	42.4%	10.8%	31.8%	23.7%	34.5%	34.5%
DB컨설팅·솔루션	10,553	71.5%	4,200	28.5%	14,753	100.0%
	16.6%	4.2%	2.2%	1.7%	5.9%	5.9%
DB서비스	26,133	17.5%	123,386	82.5%	149,519	100.0%
	41.0%	10.4%	66.0%	49.2%	59.6%	59.6%
전체	63,739	25.4%	187,050	74.6%	250,789	100.0%
	100.0%	25.4%	100.0%	74.6%	100.0%	100.0%

DB직무는 DB 관련 기획·컨설팅, DB개발·구축, DB운영·관리, DB 관련 마케팅 등 4개 대분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8개 중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 DB직무 중분류 직무 현황을 살펴보면, DB솔루션 개발 직무가 1만 7,954명(28.2%)으로 가장 많으며, DB운영 직무 1만 3,979명(21.9%), DB응용 개발 직무 1만 450명(16.4%)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35〉 DB직무별 종사자 현황(2013년)

(단위 : 명)

구분	DB관련 기획·컨설팅		DB개발·구축		DB운영·관리			DB 관련 마케팅	DB관련 종사자 합계
	DB 컨설팅	DB 활용 컨설팅	DB솔루션 개발	DB 응용 개발	DB 운영	DB 품질관리	DB 성능관리		
DB구축	2,401	1,209	10,864	3,935	3,514	1,498	893	2,739	27,053
DB컨설팅·솔루션	816	866	3,915	911	613	623	1,123	1,686	10,553
DB서비스	1,495	1,461	3,175	5,604	9,852	1,597	803	2,146	26,133
전체	4,712	3,536	17,954	10,450	13,979	3,718	2,819	6,571	63,739

최근 4년간 DB직무별 종사자 추이를 살펴보면, DB 관련 마케팅 직무 종사자 수가 연평균 40.6%로 가장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DB활용 컨설팅 직무가 32.9%, DB성능관리 직무가 24.2% 순으로 높게 증가하고 있다.

〈표 2-1-36〉 DB산업 DB직무별 종사자 추이

(단위 : 명)

대분류	중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E)	증감률		CARG ('10-'13)
						('11-'12)	('12-'13)	
DB관련 기획 및 컨설팅	DB컨설팅	7,168	5,086	4,473	4,712	-12.1%	5.3%	-13.1%
	DB활용컨설팅	1,506	3,669	3,317	3,536	-9.6%	6.6%	32.9%
	소계	8,674	8,755	7,790	8,248	-11.0%	5.9%	-1.7%
DB개발 및 구축	DB솔루션개발	16,304	10,609	17,428	17,954	64.3%	3.0%	3.3%
	DB응용개발	8,515	14,717	9,822	10,450	-33.3%	6.4%	7.1%
	소계	24,819	25,326	27,250	28,404	7.6%	4.2%	4.6%
DB운영 및 관리	DB운영	14,591	12,802	14,424	13,979	12.7%	-3.1%	-1.4%
	DB품질관리	3,285	2,409	3,456	3,718	43.5%	7.6%	4.2%
	DB성능관리	1,470	2,880	2,485	2,819	-13.7%	13.4%	24.2%
	소계	19,346	18,091	20,365	20,516	12.6%	0.7%	2.0%
DB관련 마케팅		2,363	5,931	6,063	6,571	2.2%	8.4%	40.6%
DB직무 종사자 합계		55,202	58,103	61,468	63,739	5.8%	3.7%	4.9%

제2절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DB구축 현황은 DB자산가치 측정 시범조사의 결과로 2012년 DB산업 현황 조사와 함께 처음 시작되어, DB산업과 주요 6개 일반산업(공공부문, 금융업, 유통·서비스업, 제조업, 의료업, 통신·미디어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인 2013년 시범조사는 DB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 수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산출한 통계는 DB자산가치의 측정치가 아님을 미리 밝힌다. DB자산가치 분석은 향후 몇 년간 데이터를 누적한 후 DB자산가치 측정 방법론 및 모델 연구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1. DB구축 건수

2013년까지 DB산업 및 주요 6개 일반산업에서 전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상품으로서 DB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된 DB건수는 총 1만 3,422건으로 추정된다. 이 중 DB산업은 3,795건으로 전체 DB구축 건수의 28.3%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DB서비스 분야가 2,10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산업의 경우는 제조업이 4,488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산업의 총 DB구축 건수의 3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7〉 DB구축 건수

(단위 : 개)

구분	기업수	비중	구축DB건수	비중
DB구축	756	6.3%	808	6.0%
DB컨설팅	466	3.9%	533	4.0%
DB솔루션	324	2.7%	349	2.6%
DB서비스	2,004	16.7%	2,105	15.7%
DB산업 전체	3,550	29.5%	3,795	28.3%
공공	1,149	9.6%	1,384	10.3%
금융	174	1.4%	188	1.4%
유통·서비스	1,839	15.3%	2,061	15.4%
제조	3,998	33.3%	4,488	33.4%
의료	751	6.2%	869	6.5%
통신·미디어	560	4.7%	637	4.7%
일반 산업 전체	8,471	70.5%	9,627	71.7%
전 산업	12,021	100.0%	13,422	100.0%

2. DB구축 방법 및 투입 비용

2012년 DB구축에 투입된 비용은 총 3조 977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DB산업은 9,230억 원, 일반산업은 2조 1,748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DB산업에서는 DB서비스 시장, 일반산업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개발, 외주개발, 외부구매의 DB구축 방법별 투입비용을 살펴보면, 산업을 불문하고 자체개발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2012년은 총 1조 2,831억 원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외주개발이 1조 2,620억 원(40.7%), 외부구매가 5,527억 원(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8〉 DB구축 방법 및 투입 비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자체개발		외주개발		외부구매		전체	
	비용	비중	비용	비중	비용	비중	비용	비중
DB구축	144,848	18.8%	5,664	5.1%	433	1.0%	150,945	16.4%
DB컨설팅	112,110	14.6%	2,920	2.6%	2,315	5.3%	117,345	12.7%
DB솔루션	102,760	13.4%	2,425	2.2%	187	0.4%	105,372	11.4%
DB서비스	408,713	53.2%	100,133	90.1%	40,490	93.2%	549,336	59.5%
DB산업 전체	768,432	100.0%	111,142	100.0%	43,425	100.0%	922,998	100.0%
	83.3%	59.9%	12.0%	8.8%	4.7%	7.9%	100.0%	42.4%

표계속 ▼

구분	자체개발		외주개발		외부구매		전체	
	비용	비중	비용	비중	비용	비중	비용	비중
공공	61,417	11.9%	273,507	23.8%	11,364	2.2%	346,288	15.9%
금융	1,577	0.3%	17,645	1.5%	3,667	0.7%	22,889	1.1%
유통·서비스	53,470	10.4%	101,514	8.8%	13,942	2.7%	168,927	7.8%
제조	370,565	72.0%	514,699	44.7%	202,677	39.8%	1,087,941	50.0%
의료	26,809	5.2%	146,235	12.7%	117,670	23.1%	290,713	13.4%
통신·미디어	844	0.2%	97,264	8.5%	159,929	31.4%	258,037	11.9%
일반 산업 전체	514,682	100.0%	1,150,863	100.0%	509,249	100.0%	2,174,794	100.0%
	23.7%	40.1%	52.9%	91.2%	23.4%	92.1%	100.0%	57.6%
전 산업	1,283,114	100.0%	1,262,005	100.0%	552,674	100.0%	3,097,792	100.0%
	41.4%	—	40.7%	—	17.8%	—	100.0%	—

3. DB총량 및 개발 소요기간

구축된 DB의 총량은 6,460,242 테라바이트로 나타났다. 이 중 82.2%는 DB산업의 DB총량이며, 그 중에서도 DB서비스 시장의 DB총량이 6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B개발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3개월이며, 이 중 DB산업의 경우는 평균 8.8개월로 11.4개월인 일반산업에 비해 개발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9〉 DB총량 및 개발 소요기간

(단위 : TB, 개월)

구분	DB 총량		개발 소요기간 (평균)
	총량	비중	
DB구축	462,726	7.2%	6.2
DB컨설팅	352,407	5.5%	7.4
DB솔루션	291,700	4.5%	8.2
DB서비스	4,206,330	65.1%	13.3
DB산업 전체	5,313,163	82.2%	8.8
공공	46,398	0.7%	12.7
금융	48,316	0.7%	13.4
유통·서비스	446,862	6.9%	9
제조	517,381	8.0%	13.6
의료	77,505	1.2%	9.9
통신·미디어	10,617	0.2%	9.5
일반 산업 전체	1,147,079	17.8%	11.4
전 산업	6,460,242	100.0%	10.3

4. 폐기·갱신·교체 기간

가. 산업 부문별 폐기·갱신·교체 소요기간

구축한 DB의 내용을 50%미만 폐기·갱신·교체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17.1개월, 90%이상 폐기·갱신·교체 소요기간은 평균 28.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50%까지 폐기·갱신·교체 소요기간은 DB산업이 16.5개월로 17.7개월인 일반산업 보다 그 주기가 짧았고, 90%이상 폐기·갱신·교체 소요기간은 DB산업이 28.3개월, 일반산업이 28.1개월로 일반산업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50%미만 폐기·갱신·교체까지 걸린 소요기간과 90%이상 폐기·갱신·교체까지 걸린 소요기간이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 부문별 시장에서 구축·보유하고 있는 DB의 유형과 주제 분야 등 다양한 DB의 특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2-1-40〉 DB 폐기·교체·갱신 소요기간

(단위 : 개, 개월)

구분	50%미만 폐기·갱신·교체		90%이상 폐기·갱신·교체	
	건수	소요기간	건수	소요기간
DB구축	38	17.6	44	25.7
DB컨설팅	8	18.2	13	25.3
DB솔루션	8	16.0	12	32.0
DB서비스	148	16.1	181	28.9
DB산업 전체	202	16.5	250	28.3
공공	29	17.9	33	32.1
금융	14	23.0	21	25.6
유통·서비스	25	21.0	33	22.7
제조	89	15.8	107	29.5
의료	14	21.6	19	26.0
통신·미디어	15	14.9	18	27.2
일반 산업 전체	186	17.7	231	28.1
전 산업	388	17.1	481	28.2

나. 주제 분야별 폐기·갱신·교체 소요기간

50%미만 폐기·갱신·교체까지의 소요기간을 주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훈련 정보서비스가 15.1개월로 최단기간, 신용·재무 정보서비스가 19.3개월로 최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1〉 주제 분야별 50%미만 폐기·갱신·교체까지 소요기간

(단위 : 개, 개월)

구분		교육 훈련	경영 비즈니스	신용 재무	취업 창업	통계	문화 예술	생활	뉴스	포털	학술	행정 법률
DB구축	건수		20	5				7		4		2
	개월		16.3	17.6				17.2		19.5		17.5
DB컨설팅	건수		3	3		2						
	개월		17.3	18.8		18.5						
DB솔루션	건수		5	3								
	개월		16.3	15.7								
DB서비스	건수	16	48	5	2	4	9	33	13	11	3	4
	개월	15.6	15.4	14.6	17.6	14.3	14.9	15.4	15.6	18.3	16.6	18.5
DB산업 전체	건수	16	76	16	2	6	9	40	13	15	3	6
	개월	15.6	16.3	16.7	17.6	16.4	14.9	16.3	15.6	18.9	16.6	18.0
공공	건수	1	11	5			3	2	2		3	2
	금융	16.0	22.3	22.0			18.3		15.2		15.5	16.0
금융	건수		7	7								
	서비스		20.1	25.8								
유통·서비스	건수		20	3		1						1
	의료		19.5	23.5		22.0						19.0
제조	건수	2	67	18		2						
	개월	16.0	16.5	18.2		12.4						
의료	건수		9	1		2		1				1
	개월		23.5	24.0		19.5		18.0				23.0
통신·미디어	건수	1	9	2					3			
	개월	12.0	15.5	17.5					14.5			
일반산업 전체	건수	4	123	36		5	3	3	5		3	4
	개월	14.7	19.6	21.8		18.0	18.3	18.0	14.9		15.5	19.3
전 산업	건수	20	199	52	2	11	12	43	18	15	6	10
	개월	15.1	17.9	19.3	17.6	17.2	16.6	17.2	15.2	18.9	16.1	18.7

90%이상 폐기·갱신·교체하는데 필요한 소요기간은 통계 정보서비스가 24.4개월로 최단기간이 소요되고, 학술정보서비스가 32.0개월로 최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2〉 주제 분야별 90%이상 폐기·갱신·교체까지 소요기간

(단위 : 개, 개월)

구분		교육 훈련	경영 비즈니스	신용 재무	취업 창업	통계	문화 예술	생활	뉴스	포털	학술	행정 법률
DB구축	건수		22	6				9		4		3
	개월		30.4	25.7				22.3		25.6		24.6
DB컨설팅	건수		4	5		4						
	개월		31.4	22.9		21.6						
DB솔루션	건수		8	4								
	개월		30.7	33.4								
DB서비스	건수	18	52	8	3	5	14	43	15	14	4	5
	개월	22.4	28.2	29.4	30.4	29.1	27.7	28.2	28.4	33.1	29.4	31.3
DB산업 전체	건수	18	86	23	3	9	14	52	15	18	4	8
	개월	22.4	30.2	27.8	30.4	25.4	27.7	25.3	28.4	29.3	29.4	28

표 계속 ▶

(단위 : 개, 개월)

구분		교육 훈련	경영 비즈니스	신용 재무	취업 창업	통계	문화 예술	생활	뉴스	포털	학술	행정 법률
공공	건수	2	13	6			3	2	2		3	2
	개월	28.5	32.5	31.8			31.5	33.4	31.0		34.5	33.5
금융	건수		11	10								
	개월		27.2	24.0								
유통·서비스	건수		25	5		1						2
	개월		24.5	22.5		22.4						21.5
제조	건수	2	73	29		3						
	개월	30.5	32.5	28.4		26.5						
의료	건수		12	2		3		1				1
	개월		32.4	27.5		21.0		25.4				23.5
통신·미디어	건수	1	11	3					3			
	개월	26.0	33.0	25.5					24.4			
일반산업 전체	건수	5	145	55		7	3	3	5		3	5
	개월	28.3	30.4	26.6		23.3	31.5	29.4	27.7		34.5	26.2
전 산업	건수	23	231	78	3	16	17	55	20	18	7	13
	개월	25.4	30.3	27.2	30.4	24.4	29.6	27.4	28.1	29.3	32	27.1

5. 갱신주기

DB 갱신주기는 매일 갱신하는 경우가 64.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월 갱신하는 비중이 10.9%로 높게 나타났다. DB산업의 경우 DB 갱신주기는 매일 갱신하는 경우가 58.8%로 가장 많고, 매월 갱신 비중이 11.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특히, DB서비스 시장의 경우 신속성 및 최신성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요소이기에 매일 갱신하는 비율이 67.5%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산업의 경우는 매일 갱신하는 비율이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43〉 DB 갱신주기

(단위 : %)

구분	매일	매주	격주	매월	격월	분기별	연간
DB구축	40.3	12.9	1.6	19.4	1.6	9.7	6.5
DB컨설팅	54.2	4.2	4.2	12.5	0.0	8.3	8.3
DB솔루션	39.3	0.0	3.6	21.4	0.0	7.1	21.4
DB서비스	67.5	6.6	2.4	9.0	0.0	7.2	5.4
DB산업 전체	58.8	7.8	2.4	11.8	0.4	7.8	7.3
공공	81.5	4.8	0.0	5.4	0.0	2.3	5.4
금융	86.2	0.6	0.6	0.0	0.0	0.0	12.1
유통·서비스	75.1	0.0	3.0	9.5	0.0	3.0	0.4
제조	59.6	5.5	1.9	13.6	0.0	4.4	12.2
의료	85.3	0.0	0.0	6.9	0.0	0.0	1.0
통신·미디어	77.3	0.0	0.0	3.8	0.0	0.0	0.0
일반산업 전체	70.1	3.3	1.6	10.0	0.0	3.0	6.9
전 산업	64.4	5.5	2.0	10.9	0.4	5.4	7.1

2 CHAPTER

해외 데이터베이스 산업 동향

제1절 해외 정보서비스 시장 현황

정보서비스 시장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지난 수년간 유지해 온 분류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정보서비스 시장을 1) 검색·신디케이션(Search, Aggregation & Syndication), 2) 뉴스(News Providers & Publishers), 3) 교육(Education Content & Technology), 4) 신용·재무(Credit & Financial Information), 5) 소비자 도서(Consumer Book), 6) 인적자원 관리(Human Capital Management), 7) 시장 & IT 리서치(Market & IT Research), 8) 소비자 잡지(Consumer Magazine), 9) 과학·기술·의료(Science, Technical & Medical Information : STM), 10) 비즈니스 제휴·기업(B2B Trade & Company Information), 11) 옐로우페이지·디렉터리(Yellow Pages & Directories), 12) 법률·세제·규제(Legal, Tax & Regulatory : LTR)의 12개 세부 분야로 분류하기로 한다.

2013년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6% 성장한 5,62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가 10.6%라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이유는 기존에 취업·채용(HR Information)으로 분류되던 시장이 인적자원 관리 정보로 대체되면서, 대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이 분야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채용 분야는 2012년만 해도 시장 규모가 61억 달러로 전체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인적자원 관리 정보로 대체되면서 시장 규모는 435억 달러, 비중은 7.7%로 급증했다. 따라서 인적자원 관리 정보를 제외할 경우 2013년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3.3%로, 전년 성장률 3.8% 대비 약간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2-1〉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 분류

분야	정의
검색·신디케이션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취합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유용한 정보 형태로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뉴스	신문이나 잡지 등의 뉴스 정보 제공
교육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 콘텐츠 및 관련 솔루션 등의 기술을 정보 형태로 제공
신용·재무	기업들의 신용이나 재무에 대한 정보 제공
소비자 도서 *	일반 소비자 대상 책 시장
인적자원 관리 **	취업, 채용, 인맥관리, 훈련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시장 & IT 리서치	특정 시장이나 IT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산업·마케팅 등에 대한 정보를 리포트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
소비자 잡지 *	일반 소비자 대상 잡지 시장
과학·기술·의료(STM)	과학, 기술, 의료 등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정보 제공
비즈니스 제휴·기업	기업들의 개별 정보와 제휴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정보 형태로 제공
옐로우페이지·디렉터리	업종별, 기업별 연락처 등의 정보 제공
법률·세제·규제(LTR)	각국 정부 및 공공분야의 법률, 세제, 규제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소비자 도서와 소비자 잡지는 2011년부터 추가되었으며, 따라서 2011년, 2012년, 2013년 시장 규모만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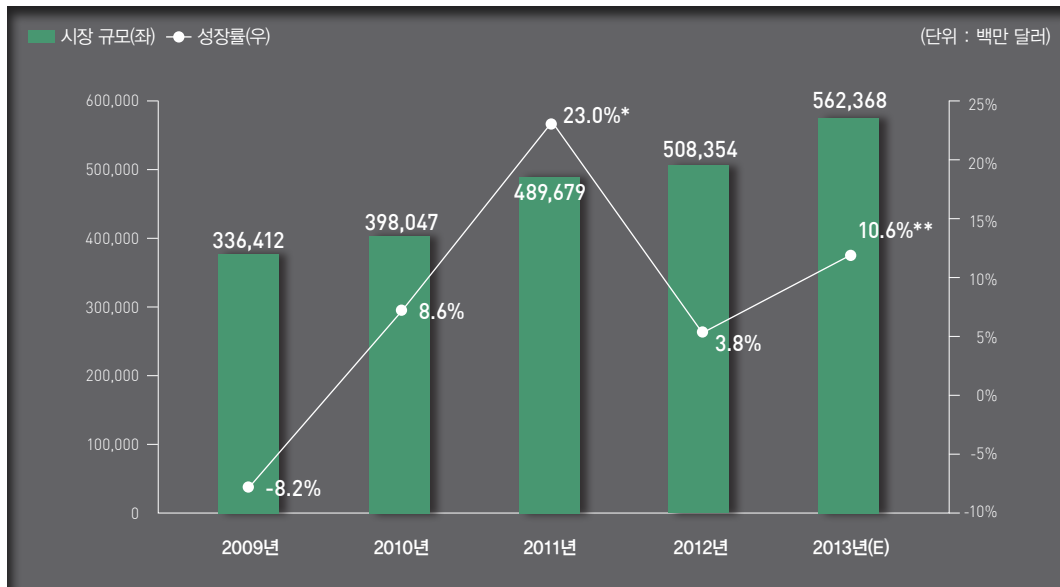
** 기존 취업·채용이 2013년 인적자원 관리로 대체

※ 출처 : Outsell, Information Industry Market Size & Share Rankings Report: Preliminary 2013 Results, 2014.1; Outsell, Information Industry Market Size & Share Rankings: Preliminary 2012 Results, 2013.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재구성 이하 동일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로, 2013년 시장 규모는 882억 달러이다.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한 뉴스 정보서비스가 784억 달러, 교육 정보서비스가 693억 달러, 신용·재무 정보서비스가 537억 달러, 소비자 도서 시장이 477억 달러, 인적자원 관리 정보서비스가 435억 달러, 시장 & IT 리서치 정보서비스가 404억 달러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던 분야는 뉴스 정보서비스였으나, 이 분야의 지속적인 하락세와 구글(Google)을 필두로 한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맞물리면서 2013년에는 결국 이 두 분야의 시장 규모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1)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2011년부터 소비자 도서와 소비자 잡지가 추가되면서 2011년 시장 규모와 성장률이 큰 폭(23%)으로 증가

** 2013년 10.6%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는 기존의 취업·채용이 인적자원 관리 정보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취업·채용 정보 외에 인맥관리, 인적자원 훈련 등 새로운 시장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표 2-2-2〉 세계 정보서비스 분야별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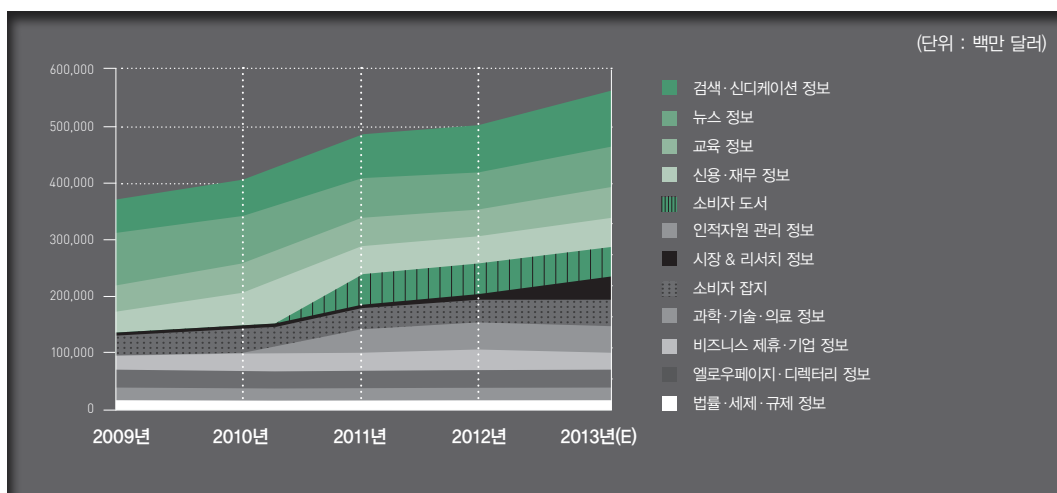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E)	CAGR ('09-'13)
검색·신디케이션	48,774	54,220	63,437	74,272	88,235	16.0%
뉴스	99,875	94,844	88,205	82,474	78,350	-5.9%
교육	46,601	59,931	61,430	66,956	69,347	10.4%
신용·재무	41,269	46,323	48,176	50,930	53,748	6.8%
소비자 도서 *	0	0	5,767	47,139	47,705	-
인적자원 관리 **	3,397	5,046	5,122	6,100	43,543	89.2%
시장 & IT 리서치	33,462	36,048	38,643	39,692	40,433	4.8%
소비자 잡지 *	0	0	35,341	35,716	36,180	-
과학·기술·의료(STM)	24,458	8,562	29,790	31,102	32,315	7.2%
비즈니스 제휴·기업	21,980	27,587	28,672	29,684	30,372	8.4%
옐로우페이지·디렉터리	32,134	28,905	27,604	24,581	22,393	-8.6%
법률·세제·규제(LTR)	14,462	16,579	17,491	19,708	19,747	8.1%
합계	366,412	398,047	489,679	508,354	562,368	11.3%

* 소비자 도서와 소비자 잡지는 2011년부터 추가되었으며, 따라서 2011년, 2012년, 2013년 시장 규모만 도출

** 기존 취업·채용이 2013년 인적자원 관리 정보로 대체되면서 이 분야의 2013년 시장 규모가 급증, CAGR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대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색·신디케이션 정보 분야가 가장 높은 CAGR을 기록

(그림 2-2-2) 세계 정보서비스 분야별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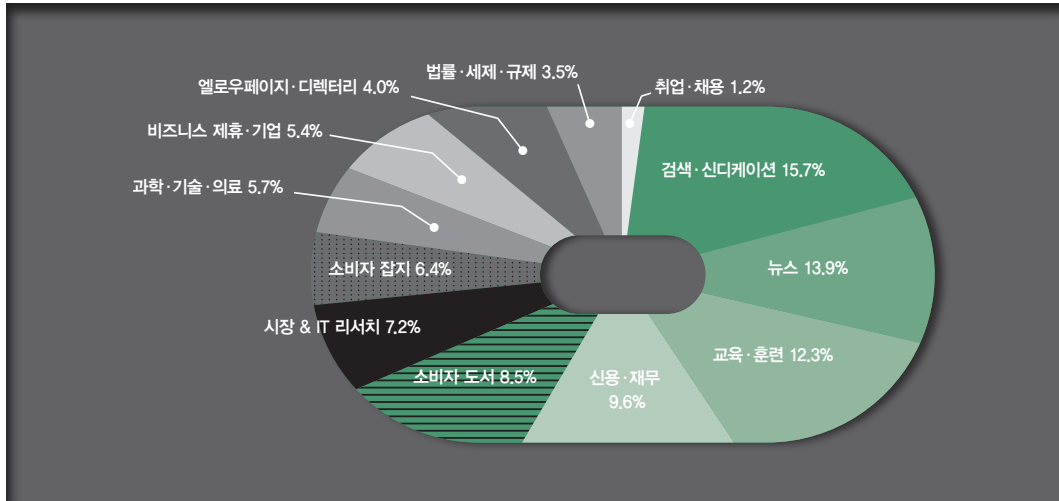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의 분야별 시장 규모 비중을 보면, 2013년 기준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이 1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뉴스 정보서비스가 13.9%, 교육 정보서비스 시장이 12.3%, 신용·재무 정보서비스 시장 9.6%, 소비자 도서 시장이 8.5%, 인적자원 관리 정보서비스 시장이 7.7%, 시장 & IT 리서치 정보서비스 시장이 7.2%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3〉 세계 정보서비스 분야별 시장 규모 비중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E)
검색·신디케이션	13.3%	13.6%	13.0%	14.6%	15.7%
뉴스	27.3%	23.8%	18.0%	16.2%	13.9%
교육	12.7%	15.1%	12.5%	13.2%	12.3%
신용·재무	11.3%	11.6%	9.8%	10.0%	9.6%
소비자 도서	0.0%	0.0%	9.3%	9.3%	8.5%
인적자원 관리	0.9%	1.3%	1.0%	1.2%	7.7%
시장 & IT 리서치	9.1%	9.1%	7.9%	7.8%	7.2%
소비자 잡지	0.0%	0.0%	7.2%	7.0%	6.4%
과학·기술·의료(STM)	6.7%	7.2%	6.1%	6.1%	5.7%
비즈니스 제휴·기업	6.0%	6.9%	5.9%	5.8%	5.4%
옐로우페이지·디렉터리	8.8%	7.3%	5.6%	4.8%	4.0%
법률·세제·규제(LTR)	3.9%	4.2%	3.6%	3.9%	3.5%

분야별 시장 규모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에 소비자 도서와 소비자 잡지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다른 분야들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12년부터는 다른 분야들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뉴스 정보서비스와 엘로우페이지·디렉터리 정보서비스의 경우에는 2012년 이후에도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림 2-2-3) 세계 정보서비스 분야별 시장 규모 비중(2013)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업체로는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분야의 Google, 뉴스 정보서비스 분야의 News Corporation., 교육 정보서비스 분야의 Pearson Education, 신용·재무 정보서비스 분야의 Bloomberg, 시장 & IT 리서치 정보서비스 분야의 The Nielson Company, 과학·기술·의료 정보서비스 분야의 Reed Elsevier, 비즈니스 제휴·기업 정보서비스 분야의 IDG(International Data Group), 법률·세제·규제 정보서비스 분야의 Thomson Reuters 등이 유명하며, 이외에 McGraw-Hill Financial, Wolters Kluwer 등과 같은 업체들도 주요 정보서비스 업체로 꼽힌다. 이들 주요 정보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상기 언급한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큰 업체인 Google은 2013년 매출이 603억 달러로, 2위인 Thomson Reuters의 매출 124억 달러의 약 5배에 달했다. 이러한 Google의 압도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은 지난 수년간 매년 10%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정보서비스 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20대 업체에는 Google 외에도 Baidu, Yahoo!, Microsoft 등과 같은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업체들이 포진하고 있다. Thomson Reuters는 신용·재무 정보, 과학·기술·의료 정보, 법률·세제·규제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정보서비스 업체다. 상

위 20대 업체에는 Thomson Reuters 외에도 Reed Elsevier, McGraw-Hill Financial, Wolters Kluwer 등과 같은 종합 정보서비스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굳이 온 전통의 강자들이다. 이 외에 교육 분야의 Pearson Education과 Benesse Corporation, 신용·재무 분야의 Bloomberg와 Experian, Moody's Corporation 등도 매년 상위 20위권 내에 랭크되는 업체들이다. 2013년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 상위 20대 업체들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상위 10위권에 중국 최대 검색 업체인 Baidu가 진입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Baidu는 2012년만 해도 17위였으나, 2013년에는 9위로 꺾충 뛰어올랐다. 이에 반해 2012년 7위였던 Yahoo!는 2013년 11위를 차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 외 나머지 10위권 업체들은 일부 순위의 변동만 약간 있을 뿐 모두 10위권 내의 자리를 지켰다. 10위~20위 사이의 업체들을 보면, 뉴스 정보서비스 업체인 PRISA와 비즈니스 제휴·기업 정보서비스 업체인 IDG가 빠진 대신, 검색 분야에서 선전한 Microsoft와 신용평가업체인 Moody's Corporation가 새로 진입했다.

〈표 2-2-4〉 세계 정보서비스 상위 20대 업체 매출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달러)

No.	업체	주요 사업 분야	2013년 매출(E)	성장률 (YoY)
1	Google	검색·신디케이션	60,286	20.2%
2	Thomson Reuters	종합	12,394	-4.0%
3	Reed Elsevier	종합	9,017	-3.3%
4	Pearson Education	교육·훈련	8,337	4.0%
5	Bloomberg	신용·재무	8,141	5.0%
6	News Corporation	뉴스	6,542	-2.8%
7	The Nielson Company	시장 & IT 리서치	5,602	3.2%
8	McGraw-Hill Financial	종합	5,061	12.0%
9	Baidu	검색·신디케이션	5,023	40.3%
10	Wolters Kluwer	종합	4,725	2.0%
11	Yahoo!	검색·신디케이션	4,688	-6.0%
12	Axel Springer	뉴스	4,319	1.5%
13	Benesse Corporation	교육·훈련	4,064	2.0%
14	The Asahi Shimbun Company	뉴스	3,993	1.0%
15	Experian	신용·재무	3,713	3.0%
16	The Yomiuri Shimbun	뉴스	3,366	1.0%
17	Microsoft	검색·신디케이션	3,200	11.6%
18	Moody's Corporation	신용·재무	3,030	11.0%
19	Gannett	뉴스	3,007	-13.4%
20	Daily Mail and General Trust(DMGT)	뉴스·비즈니스 제휴	2,703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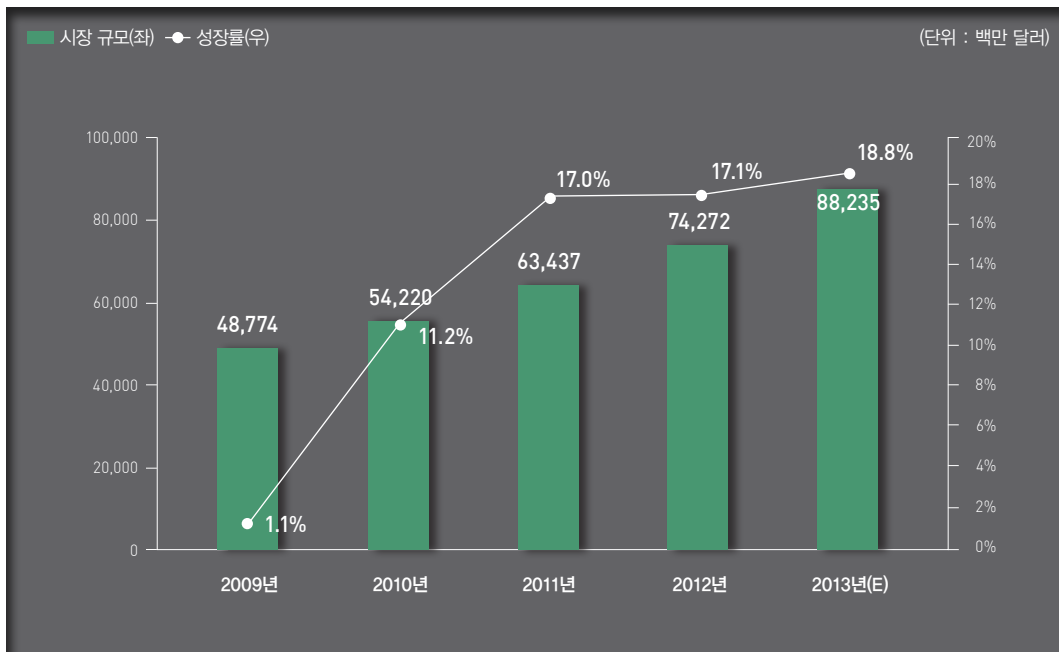
1.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가. 시장 현황

Google이 주도하고 있는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은 전체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만 해도 뉴스 정보서비스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3년에는 처음으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 올라섰다. 이는 뉴스 정보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은 지난 수년간 17~1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기 때문이다.

2013년 세계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전년의 743억 달러 대비 18.8% 증가한 882억 달러였으며, 전체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4.6%에서 2013년 15.7%로 증가했다.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은 전체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분야로, 2009~2013년 연평균 성장률은 16%에 달한다.

(그림 2-2-4)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시장 트렌드

세계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은 Google과 Baidu, Yahoo!, Microsoft 등과 같은 웹 기반 검색 업체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검색 업체들의 주요 매출원은 광고다. 특히 검색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인쇄물 광고가 검색 광고로 전환되고 있다.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분야는 미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위 10위 업체들 중 6개를 미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나 한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토종 검색 업체들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국가의 토종 업체들 역시 상위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인해 모바일 검색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Google, Microsoft, Yahoo! 등 기존 거대 검색 포털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주요 기업의 성과

세계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상위 10대 업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89.1%에서 2013년 92.4%로 더욱 확대되면서, 상위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Google의 비중은 2012년 63.2%에서 2013년 68.3%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Google로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oogle은 2013년 60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정보서비스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 2위는 중국 Baidu가 차지했다. 2012년만 해도 이 분야 3위였던 Baidu는 중국 검색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3% 증가한 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Yahoo!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또 다른 중국 업체인 Suhu.com 역시 전년 대비 49.7% 증가한 1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6위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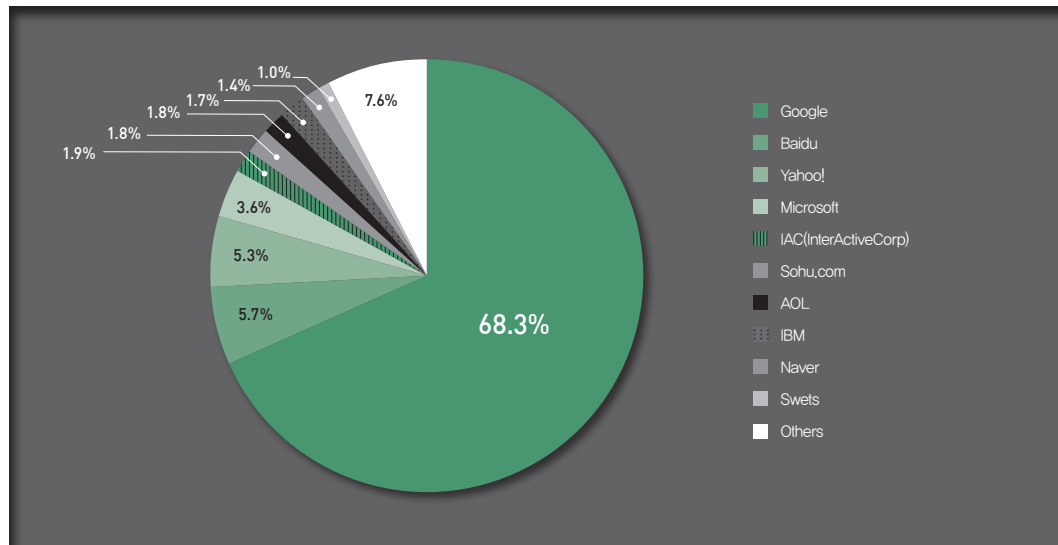
한편, 2012년 65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던 Yahoo!는 2013년 매출액이 47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3위로 내려앉았으며, 2012년 6위를 차지했던 한국의 NHN은 검색 분야가 네이버로 분리되면서 2013년에는 순위가 9위로 하락했다.

〈표 2-2-5〉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국가	2013년 매출(€)	성장률(YoY)
Google	미국	60,286	20.2%
Baidu	중국	5,023	40.3%
Yahoo!	미국	4,688	-6.0%
Microsoft	미국	3,200	11.6%
IAC(InterActiveCorp)	미국	1,707	12.9%
Sohu.com	중국	1,597	49.7%
AOL	미국	1,557	9.8%
IBM	미국	1,457	10.0%
Naver	한국	1,241	5.0%
Swets	네덜란드	913	19.2%
상위 10대 업체 매출 합계		81,537	-
전체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88,235	17.1%

(그림 2-2-5)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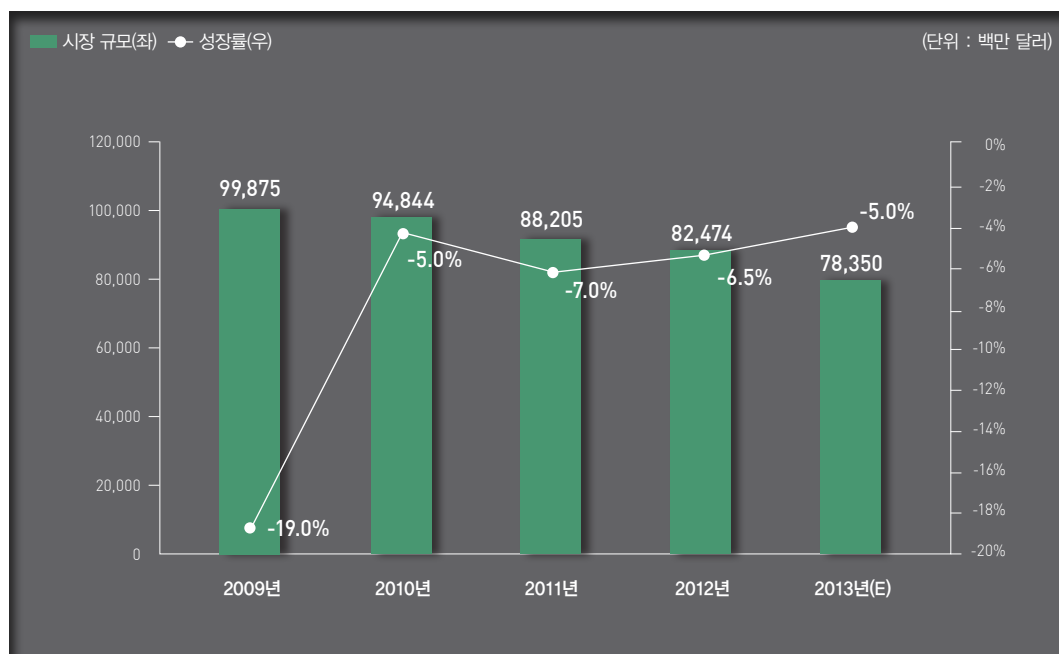
2. 뉴스 정보서비스

가. 시장 현황

신문이나 잡지로 대변되는 뉴스 정보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정보서비스 산업을 대표하는 분야로, 전체 정보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신문이나 잡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뉴스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뉴스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5% 감소한 784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전체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처음으로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분야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에 따라 뉴스 정보서비스 시장이 전체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16.2%에서 2013년 13.9%로 줄어들었다.

(그림 2-2-6) 뉴스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시장 트렌드

뉴스 정보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주요 수익원인 오프라인 인쇄물 시장의 쇠퇴에 기인한다. 세계적으로 온라인 뉴스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인쇄물 시장과 그에 따른 광고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프라인 신문과 잡지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오프라인 사업에서의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사업구조로 인해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온라인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온라인 구독료 수입도 증가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광고 매출의 하락세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독료와 광고 외에 각종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다. 주요 기업의 성과

뉴스 정보서비스 분야의 주요 업체들 역시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비껴나지 못했다. 상위 10위 업체들 중 6개 업체의 2013년 매출이 2012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4개 업체들 중 3개 업체가 1.0~1.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뉴스 정보서비스 분야 1위 업체인 News Corporation의 2013년 매출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65억 달러, 5위인 Gannett는 전년 대비 13.4% 감소한 30억 달러, 7위인 Fairfax Media는 8.5% 감소한 22억 달러를 기록했다. 9위인 Tribune Company는 7% 감소한 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3년 11월에는 700명을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10위인 DMGT는 무려 21%가 감소한 1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 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지역 신문들을 매각하면서 매출도 덩달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8위인 New York Times Company 역시 0.5%의 매출액 감소를 겪었으나, 온라인 유료 가입자가 28%나 증가하면서 기존 인쇄물 매출감소를 상쇄한 덕분에 급격한 매출하락은 막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6위인 노르웨이 Schibsted는 인쇄물 광고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3.1%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로 2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그 외 2위 업체인 Axel Springer가 1.5% 증가한 43억 달러, 3위인 일본 Asahi Shimbun과 4위인 Yomiuri Shimbun이 각각 1%씩 증가한 40억 달러와 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업체들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Nikkei CNBC가 빠지고, DMGT가 대신 10위로 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개 업체들은 모두 다시 상위 10위에 랭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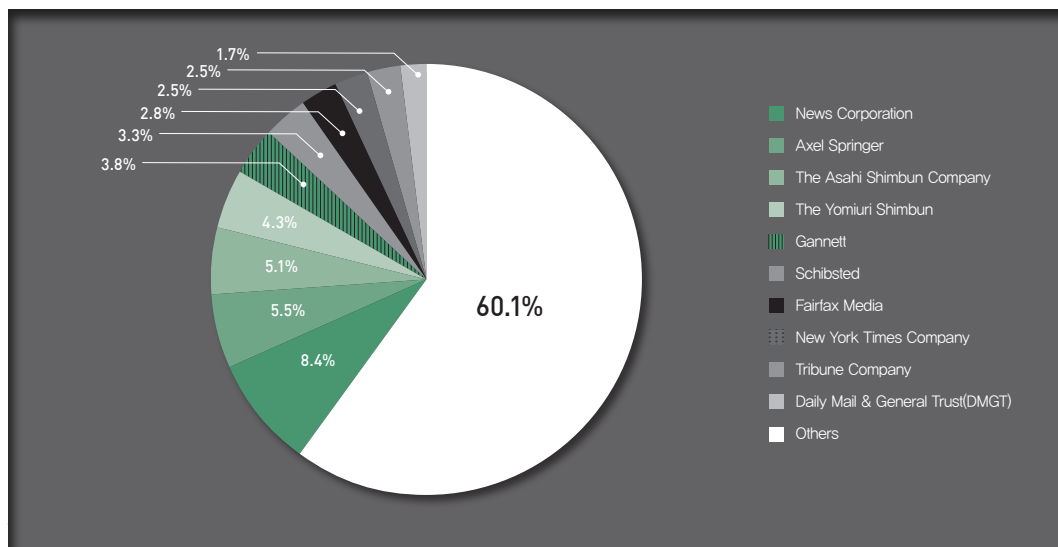
〈표 2-2-6〉 뉴스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국가	2013년 매출(E)	성장률(YoY)
News Corporation	미국	6,543	-2.8%
Axel Springer	독일	4,320	1.5%
The Asahi Shimbun Company	일본	3,993	1.0%
The Yomiuri Shimbun	일본	3,366	1.0%
Gannett	미국	3,008	-13.4%
Schibsted	노르웨이	2,619	3.1%
Fairfax Media	호주	2,210	-8.5%
New York Times Company	미국	1,980	-0.5%
Tribune Company	미국	1,922	-7.0%
Daily Mail & General Trust(DMGT)	미국	1,295	-21.0%
상위 10대 업체 매출 합계		31,256	-2.3%
전체 뉴스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78,350	-5.0%

* 백만 달러 이하 반올림으로 인해 각 업체별 매출 합계와 상위 10대 업체 매출 합계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이하 모든 자료 동일)

(그림 2-2-7) 뉴스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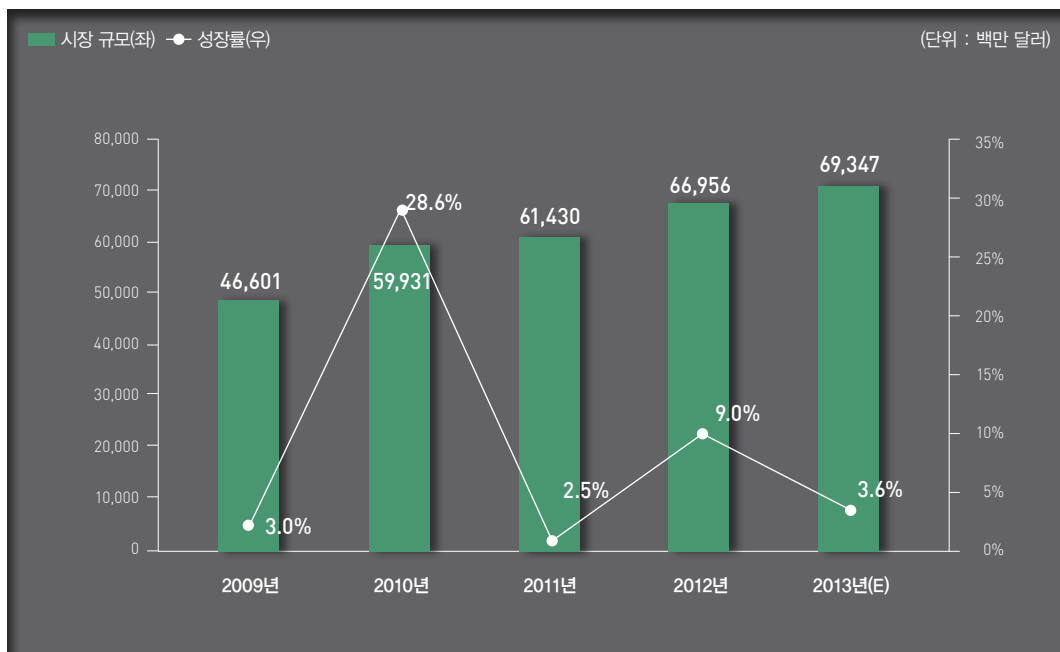
3. 교육 정보서비스

가. 시장 현황

교육 정보서비스는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뉴스 정보서비스에 이어 3번째로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 교육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3년 693억 달러로, 전년의 670억 달러 대비 3.6% 증가했으며,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를 기록했다.

교육 정보서비스의 경우, 주요 자료원인 Outsell에서는 2012년까지만 해도 교육·훈련 정보서비스로 분류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훈련을 제외한 교육 정보만을 따로 분류하는 대신, 훈련은 기존의 취업·채용과 묶어서 '인적자원 관리 정보'라는 새로운 분류에 포함시켰다. 또한 교육 정보 내에서도 '교육 콘텐츠(Education Content)'와 '교육 기술(Education Technology)'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교육 콘텐츠는 기존에 다루던 교육 분야이고, 교육 기술은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플랫폼이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 정보는 교육 콘텐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8) 교육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교육 콘텐츠와 교육 기술 분야를 합친 총 시장 규모임

나. 시장 트렌드

교육 정보서비스 시장 역시 온라인화에 따른 디지털 기반 정보서비스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교육 정보서비스는 콘텐츠 자체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전달하는 플랫폼이나 솔루션, 서비스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 기술 시장도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 교육 콘텐츠 업체들은 콘텐츠와 솔루션,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 임베디드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으며, Microsoft, IBM, Oracle 등 순수 교육 콘텐츠 업체가 아닌 솔루션 업체들이 교육 기술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다. 주요 기업의 성과

교육 정보서비스 시장에서의 주요 업체는 대부분 교육 콘텐츠 업체들이다. 사실, 교육 기술 분야는 교육 분야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분야라고 봐야 한다. 교육 기술 분야의 주요 업체들 역시 기존의 글로벌 솔루션 업체들이거나 아니면 교육 솔루션에 특화된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의 교육 정보서비스 업체는 교육 콘텐츠 업체들로 국한한다.

교육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2013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업체들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8개 업체가 상위 10대 업체에 그대로 포함되었으며, Kaplan과 Maruzen이 빠진 대신 중국의 New Oriental Education and Technology Group과 영국 Oxford University Press가 새롭게 진입했다.

Pearson Education은 2013년 53억 달러의 매출(교육 콘텐츠 매출)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이 분야 1위를 차지했다. Pearson Education은 교육 기술 분야에서도 1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교육 콘텐츠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교육 기술 분야에서도 매출액 상위 10위에 포함되었다. 일본 Benesse Corporation이 41억 달러로 2위, McGraw-Hill Education이 17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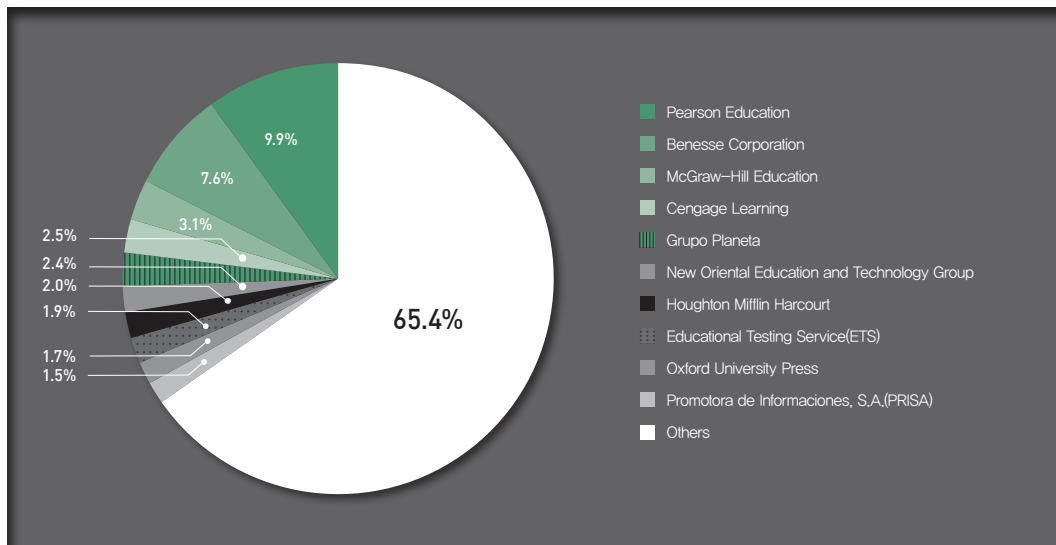
2013년에 가장 주목할 업체로는 매출액 11억 달러로 6위를 차지한 중국 New Oriental Education and Technology Group이다. 이 업체는 중국 사교육 시장 열풍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3년에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2012년에 큰 폭의 매출 하락세를 겪었던 McGraw-Hill Education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Houghton Mifflin Harcourt 역시 2012년 급속한 매출 하락세 이후 3.9%의 성장률로 비교적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표 2-2-7〉 교육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국가	2013년 매출(E)	성장률(YoY)
Pearson Education	미국	5,326	4.0%
Benesse Corporation	일본	4,065	2.5%
McGraw-Hill Education	미국	1,677	1.2%
Cengage Learning	미국	1,348	1.2%
Grupo Planeta	스페인	1,286	1.2%
New Oriental Education and Technology Group	중국	1,069	20.0%
Houghton Mifflin Harcourt	미국	1,032	3.9%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	미국	1,021	1.2%
Oxford University Press	영국	913	1.2%
Promotora de Informaciones, S.A.(PRISA)	스페인	818	-3.7%
상위 10대 업체 매출 합계		18,555	3.1%
전체 교육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53,574	3.1%

(그림 2-2-9) 교육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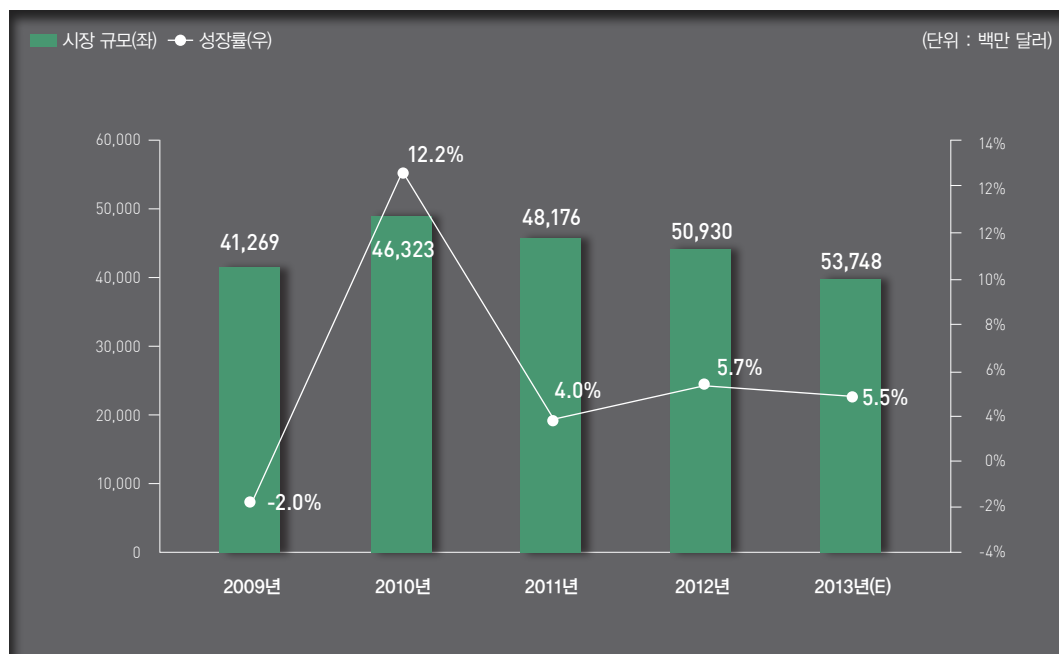


4. 신용·재무 정보서비스

가. 시장 현황

신용·재무 정보서비스는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검색·신디케이션 정보서비스, 뉴스 정보서비스, 교육 정보서비스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세계 신용·재무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537억 달러로, 전년의 509억 달러 대비 5.5% 증가했으며, 세계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이다.

(그림 2-2-10) 신용·재무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시장 트렌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각 회사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신용·재무 정보서비스 시장 역시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또한 각 회사들이 신흥시장으로의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신용·재무 정보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용 정보 역시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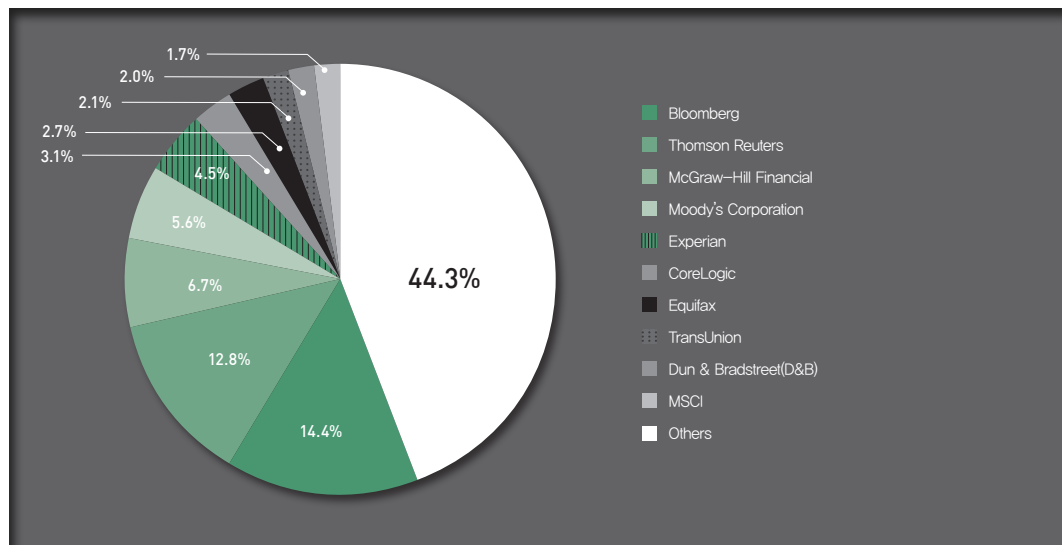
다. 주요 기업의 성과

〈표 2-2-8〉 신용·재무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국가	2013 매출(E)	성장률(YoY)
Bloomberg	미국	7,754	5.7%
Thomson Reuters	미국	6,904	-1.0%
McGraw-Hill Financial	미국	3,600	14.0%
Moody's Corporation	미국	3,030	11.0%
Experian	영국	2,433	7.0%
CoreLogic	미국	1,665	6.3%
Equifax	미국	1,460	12.0%
TransUnion	미국	1,129	2.7%
Dun & Bradstreet(D&B)	미국	1,056	-1.0%
MSCI	미국	904	9.2%
상위 10대 업체 매출 합계		29,935	-
전체 신용·재무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53,748	5.5%

(그림 2-2-11) 신용·재무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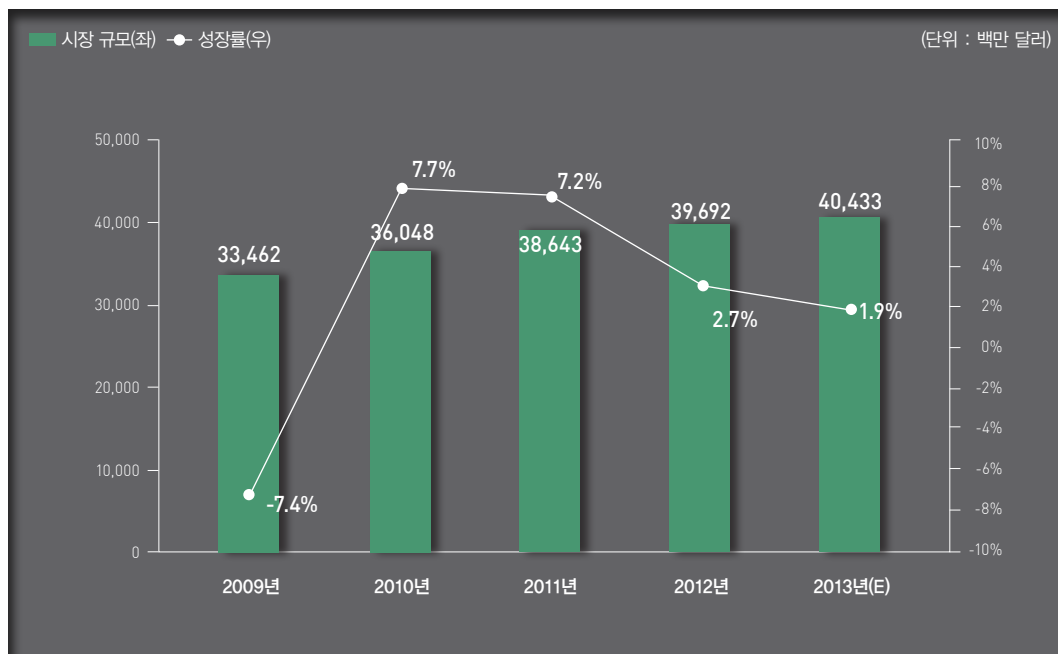
2013년 신용·재무 정보서비스 시장의 상위 10대 업체 중 3개 업체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는데, 매출액 기준 3위 업체인 McGraw-Hill Financial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36억 달러, 4위 업체인 Moody's Corporation가 11% 증가한 30억 달러, 7위 업체인 Equifax가 12%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상위 10위 업체 중 7위였던 LexisNexis와 8위였던 Verisk Analytics가 2013년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2013년에는 TransUnion과 MSCI가 각각 8위와 10위로 각각 10위권에 진입했다.

5. 시장 & IT 리서치 정보서비스

가. 시장 현황

2013년 세계 시장 & IT 리서치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전년의 397억 달러 대비 1.9% 증가한 404억 달러로, 전체 정보서비스 시장에서 7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리서치 분야는 주로 시찰률 조사, 소매 유통조사, 소비자 마케팅, 패널 조사, 미디어 조사 등 다양한 설문 조사와 각종 시장 현황 리서치 및 컨설팅, 그리고 데이터 조사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IT 리서치는 IT 산업에 대한 각종 리서치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2-12) 시장 & IT 리서치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시장 트렌드

시장 & IT 리서치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는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하고 다양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설문조사와 리서치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도구나 빅데이터, 소셜 미디어 트래킹 등의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분석과 자동화 관련 업체들이 기존 리서치 결과물 대신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The Nielsen Company나 IHS를 비롯한 상위 업체들은 꾸준한 인수합병을 통해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다. 주요 기업의 성과

대부분의 이 분야 주요 업체들은 2013년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매출 실적을 보였다. 이 분야 1위 업체이자 시청률 조사로 유명한 The Nielsen Company는 2013년 Arbitron 인수와 Harris Interactive의 완전한 합병을 통해 전년 대비 3.2% 증가한 56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표 2-2-9〉 시장 & IT 리서치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및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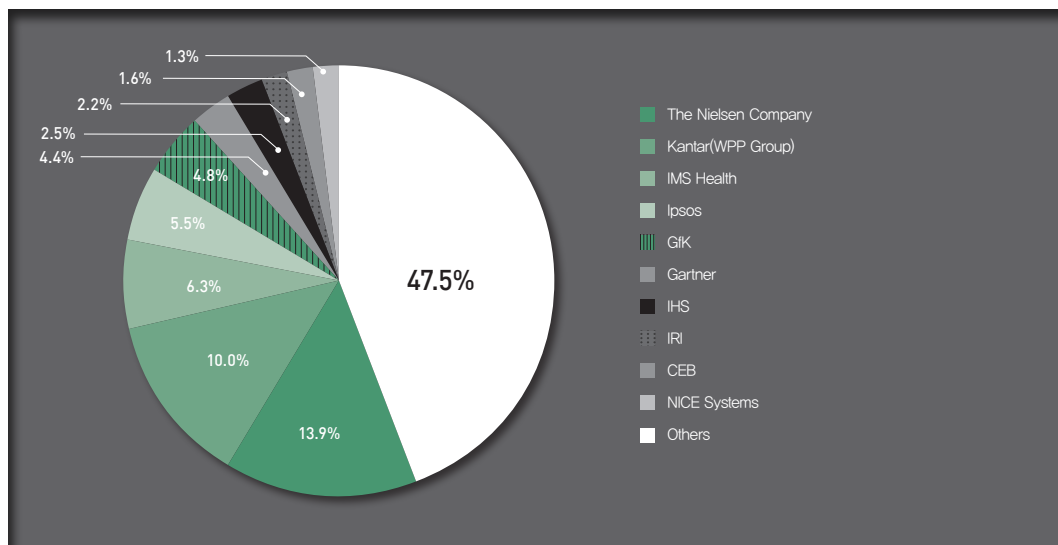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국가	2013년 매출(€)	성장률(YoY)
The Nielsen Company	미국	5,601	3.2%
Kantar(WPP Group)	영국	4,024	2.0%
IMS Health	미국	2,557	5.0%
Ipsos	프랑스	2,231	-3.0%
GfK	독일	1,960	2.1%
Gartner	미국	1,789	10.7%
IHS	영국	1,022	20.4%
IRI	미국	883	4.0%
CEB	미국	640	13.5%
NICE Systems	이스라엘	537	12.4%
상위 10대 업체 매출 합계		21,244	-
전체 시장 & IT 리서치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40,433	1.9%

2위인 Kantar(영국 WPP의 시장조사 사업부) 역시 전년 대비 2% 증가한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IHS는 2013년 POLK 인수를 통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4%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2년 9위에서 2013년 6위로 뛰어올랐다.

이에 반해 2011년 영국 리서치 업체인 Synovate를 인수하면서 2012년 매출이 24.3%나 증가했던 Ipsos의 경우, 2013년에는 기존 시장 리서치 사업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3.0% 줄어든 2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한편, 세계 IT 리서치 분야의 선두주자인 Gartner는 2012년 매출이 전년 대비 9.7% 성장한데 이어, 2013년에도 10.7%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2년 연속 1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림 2-2-13) 시장 & IT 리서치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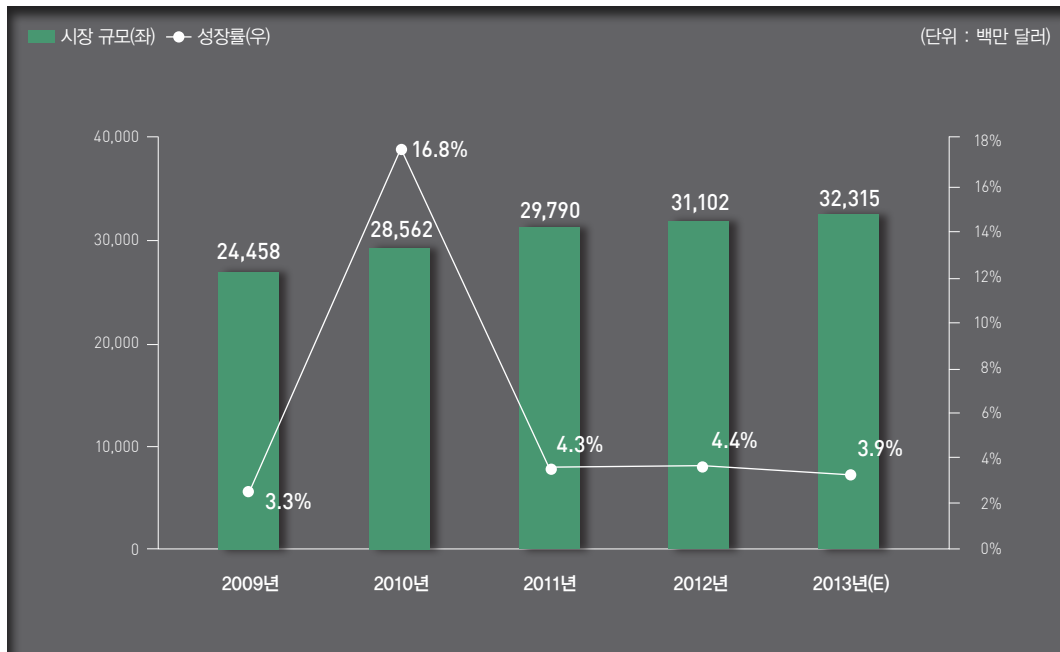


6. 과학·기술·의료 정보서비스

가. 시장 현황

과학·기술·의료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3년 323억 달러로, 전년의 311억 달러 대비 3.9% 증가했다. 과학·기술·의료 정보서비스는 시장의 특성상 정부기관이나 대학, 도서관, 국책 및 기업 연구소 등에서의 안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서비스 분야에 비해서는 경기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다.

(그림 2-2-14) 과학·기술·의료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시장 트렌드

도서관이나 학술정보 관련 기관이 주요 수요처인 과학·기술·의료 정보서비스 분야도 최근에는 책이나 잡지, 논문 등의 인쇄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책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저작물 및 전자책, 태블릿 PC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업체들 역시 이 분야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다. 주요 기업의 성과

과학·기술·의료 분야는 전통적으로 종합 정보서비스 업체들이 강세를 보여 왔으며, 대표적인 업체로는 네덜란드 Reed Elsevier, 독일 Springer, 미국 John Wiley & Sons, 네덜란드 Wolters Kluwer Health, Thomson Reuters 등이 있다. 1위 업체인 Elsevier는 2013년 전년 대비 2.0% 증가한 33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수년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5위 업체인 Wolters Kluwer Health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0% 성장한 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 Thomson Reuters는 여러 건의 인수와 조직 개편을 통해 4.3%의 성장률을, WesternGeco는 인프라와 리소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10대 업체 중 가장 높은 1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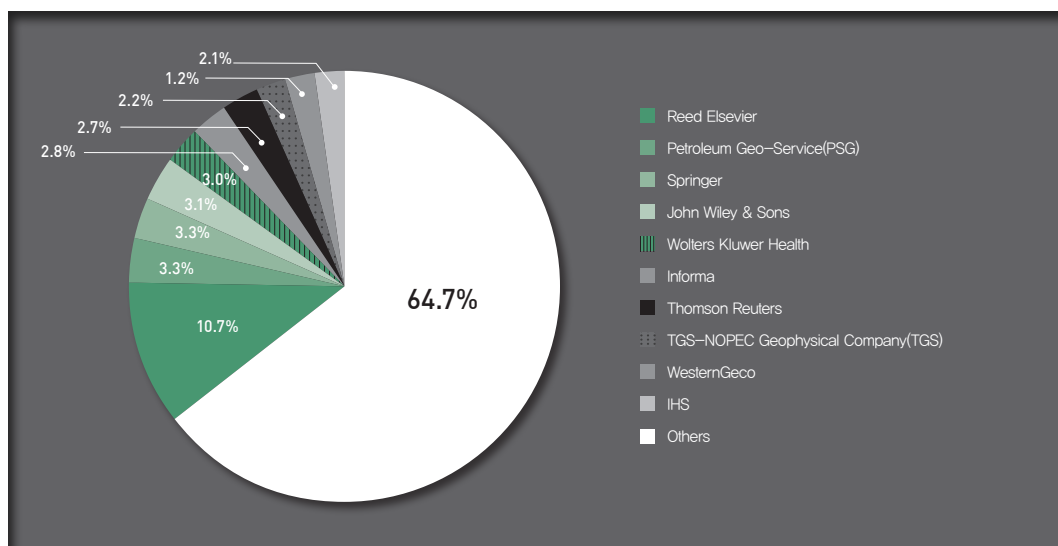
한편, 2위 업체인 Springer는 디지털 및 전자책 사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정보에 강한 Wolters Kluwer Health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2-2-10〉 과학·기술·의료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국가	2013년 매출(E)	성장률(YoY)
Reed Elsevier	네덜란드	3,335	2.0%
Petroleum Geo-Service(PSG)	노르웨이	1,433	-2.9%
Springer	독일	1,058	1.3%
John Wiley & Sons	미국	1,002	-2.0%
Wolters Kluwer Health	네덜란드	996	4.0%
Informa	스위스	958	3.7%
Thomson Reuters	미국	933	4.3%
TGS-NOPEC Geophysical Company(TGS)	노르웨이	876	-6.0%
WesternGeco	영국	778	10.0%
IHS	미국	735	4.0%
상위 10대 업체 매출 합계		12,104	1.4%
전체 과학·기술·의료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32,315	3.9%

(그림 2-2-15) 과학·기술·의료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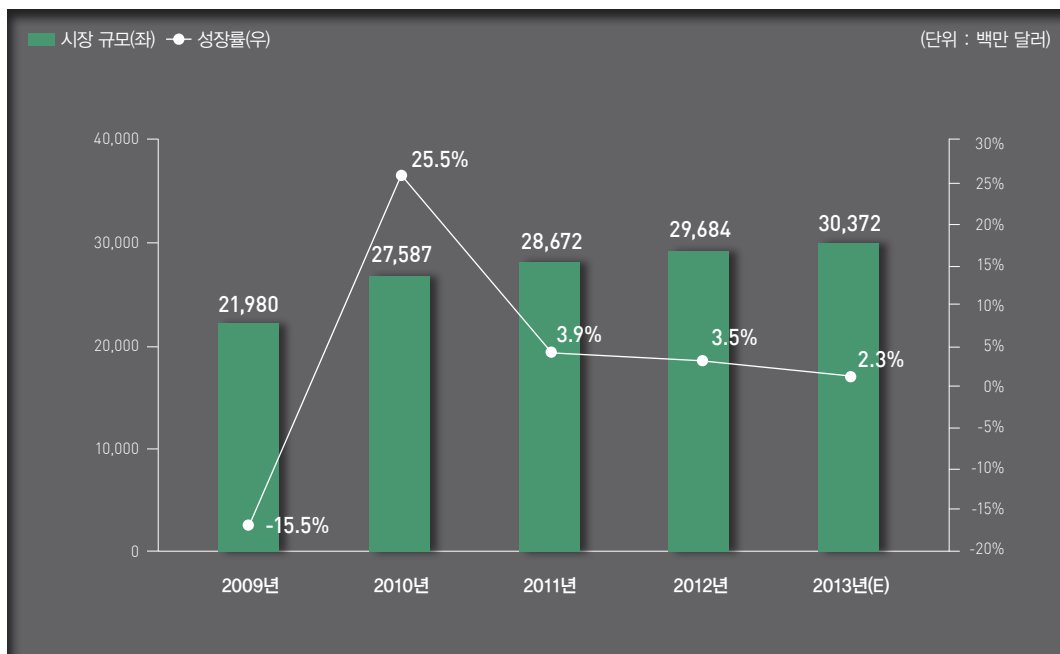


7. 비즈니스 제휴·기업 정보서비스

가. 시장 현황

세계 비즈니스 제휴·기업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3년 304억 달러로, 2012년의 297억 달러 대비 2.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 중 비즈니스 제휴 시장이 256억 달러, 기업 정보 시장이 46억 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16) 비즈니스 제휴·기업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시장 트렌드

비즈니스 제휴 부문은 글로벌 시장, 특히 신흥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분야에서의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 툴이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 정보 부문은 회사 전화번호나 이메일과 같은 기존 연락처 정보보다는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CRM)이나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등과 같이 솔루션과 결합된 통합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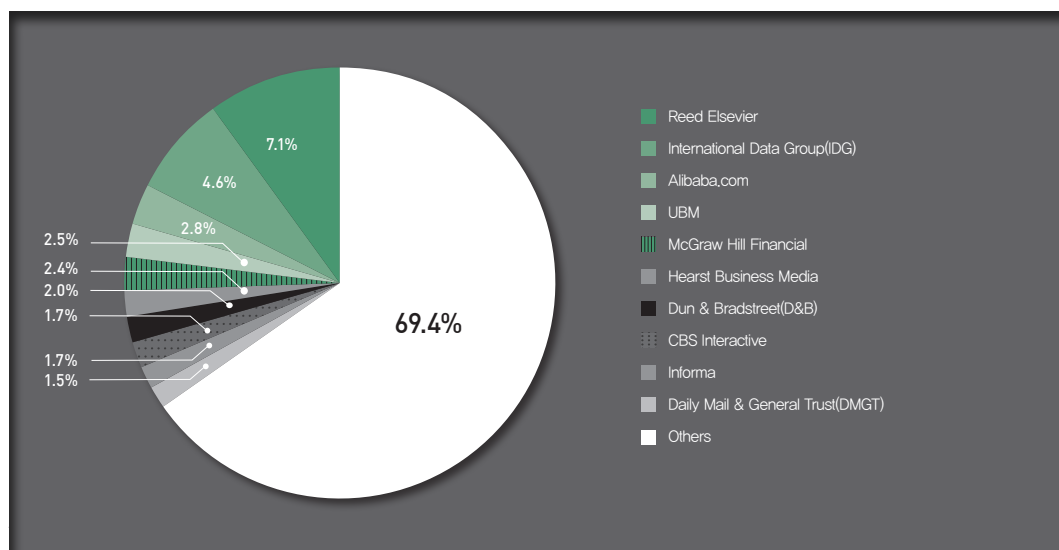
다. 주요 기업의 성과

〈표 2-2-11〉 비즈니스 제휴·기업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국가	2013년 매출(E)	성장률(YoY)
Reed Elsevier	네덜란드	2,164	-10.0%
International Data Group(IDG)	미국	1,410	5.0%
Alibaba.com	중국	1,303	12.0%
UBM	영국	859	-13.3%
McGraw Hill Financial	미국	748	2.0%
Hearst Business Media	미국	734	12.5%
Dun & Bradstreet (D&B)	미국	599	0.4%
CBS Interactive	미국	517	6.0%
Informa	스위스	509	0.0%
Daily Mail & General Trust(DMGT)	영국	446	-1.7%
상위 10대 업체 매출 합계		9,289	-
전체 비즈니스 제휴·기업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30,372	2.3%

(그림 2-2-17) 비즈니스 제휴·기업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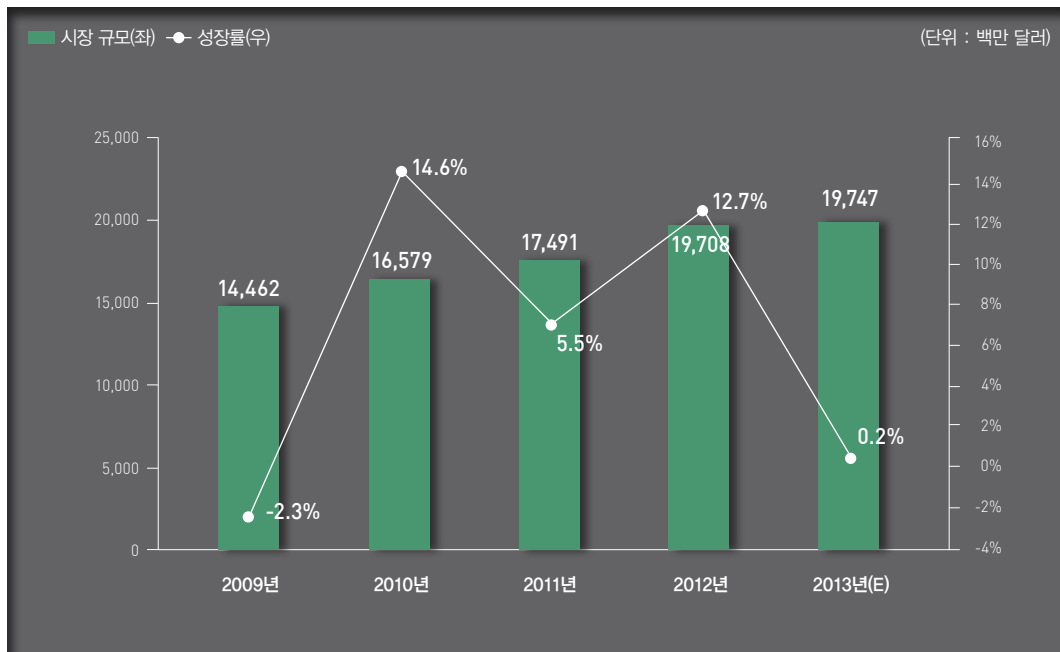
비즈니스 제후 정보서비스 분야 1위 업체인 Reed Elsevier의 2013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줄어든 22억 달러, 4위 업체인 UBM이 전년 대비 13.3% 줄어든 8.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두 업체 모두 데이터 비즈니스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2위 업체인 IDG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14억 달러, 3위 업체인 중국 Alibaba.com이 12.0% 증가한 13억 달러, 6위 업체인 Hearst Business Media가 12.5%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위 10위 업체들의 매출액 하락을 상쇄했다. Alibaba.com과 Hearst Business Media가 1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한 이유는 각각 중국과 미국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8. 법률·세제·규제 정보서비스

가. 시장 현황

세계 법률·세제·규제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3년 197억 달러로, 2012년의 197억 달러 대비 0.2% 증가했다. 법률·세제·규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요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장세가 눈에 띄지 않는 분야다.

(그림 2-2-18) 법률·세제·규제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시장 트렌드

법률·세제·규제 정보서비스 시장은 검색 툴 위주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펌들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구조조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하는 바람에 성장세가 높지 않다. 특히, 수요처 중 하나인 전문직들이 외부 법률 조언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다수의 법률 정보 제공업체들이 B2C 시장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특허 소송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투지도 늘어남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의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적으로는, 중국에서 법률 시스템을 전환하고 상거래의 불확실성을 개선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향후 중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주요 기업의 성과

법률·세제·규제 정보서비스 시장은 전통적으로 상위 3대 업체인 Thomson Reuters와 Wolters Kluwer, LexisNexis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다. 이들 상위 3사는 법률 정보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면서 2013년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1위인 Thomson Reuters의 2013년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33억 달러, 2위인 LexisNexis의 매출이 1.0% 증가한 25억 달러, 3위인 Wolters Kluwer의 매출이 2.0% 줄어든 12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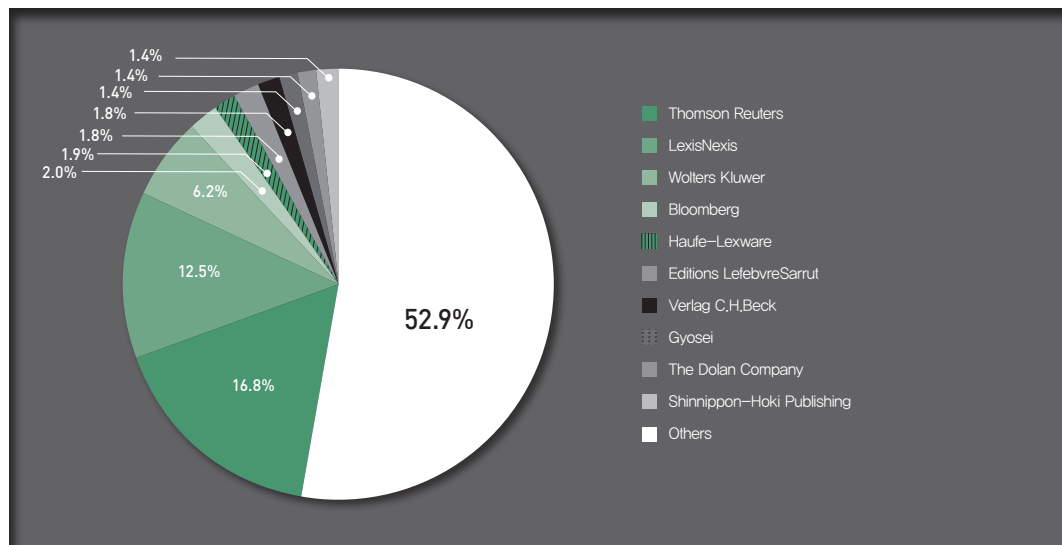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5위 업체인 독일 Haufe-Lexware는 독일 경제 호조세에 힘입어 12.0%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미국 The Dolan Company는 채무조정 합의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Thomson Reuters와 LexisNexis는 회사 전체의 매출 실적은 1.0% 성장에 그쳤으나, 이들 각사의 법률 마케팅 서비스인 Thomson Reuters의 FindLaw와 LexisNexis의 Lawyers.com은 로펌들이 신규 고객 발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다른 솔루션들보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표 2-2-12〉 법률·세제·규제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국가	2013년 매출(€)	성장률(YoY)
Thomson Reuters	미국	3,319	1.0%
LexisNexis	미국	2,466	1.0%
Wolters Kluwer	네덜란드	1,225	-2.0%
Bloomberg	미국	387	3.0%
Haufe-Lexware	독일	373	12.0%
Editions LefebvreSarrut	프랑스	349	5.0%
Verlag C.H.Beck	독일	346	2.0%
Gyosei	일본	285	3.0%
The Dolan Company	미국	280	10.0%
Shinnippon-Hoki Publishing	일본	268	6.0%
상위 10대 업체 매출 합계		9,298	1.7%
전체 법률·세제·규제 정보서비스 시장 규모		19,74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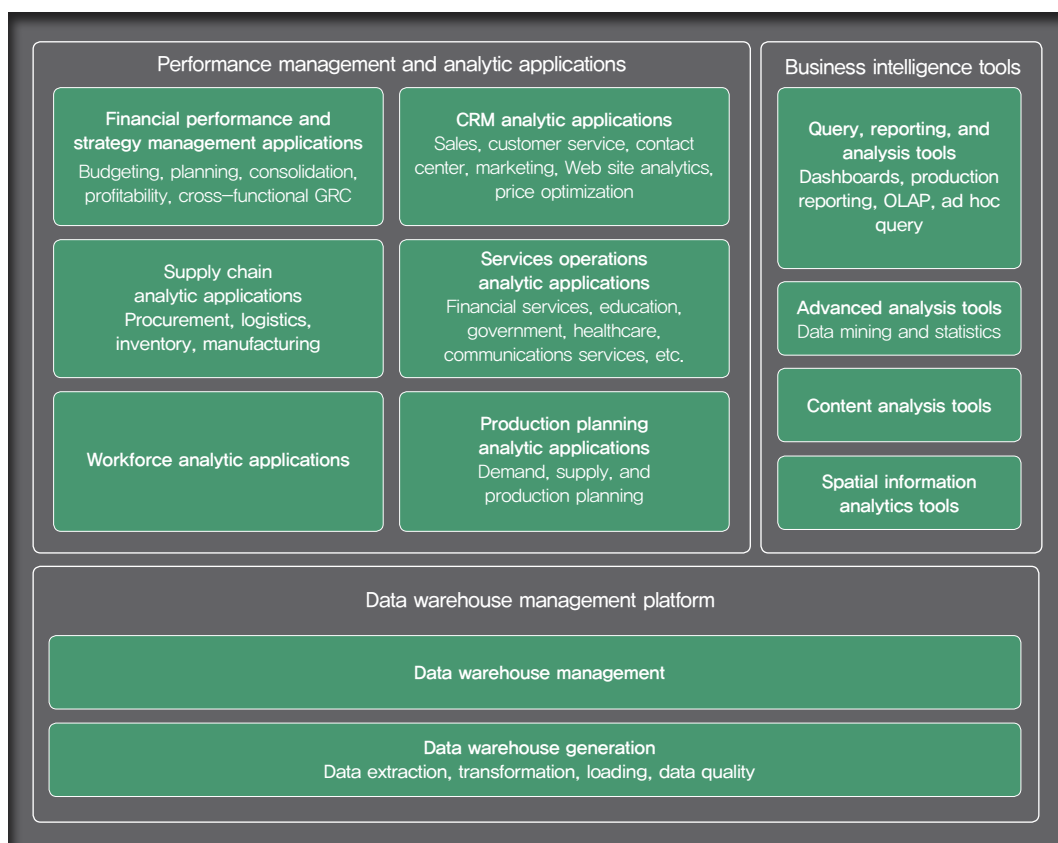
(그림 2-2-19) 법률·세제·규제 정보서비스 상위 10대 업체 매출 비중(2013)



제2절 해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시장 현황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다양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해외 주요 IT 시장조사 업체인 IDC의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Business Analytics Software)’ 시장 분류체계를 토대로 관련 솔루션을 분류하기로 한다. IDC는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을 크게 1) 성능 관리 및 분석 솔루션(Performance Management & Analytic Applications), 2) BI 솔루션(Business Intelligence Tools), 3) DW 솔루션(Data Warehouse)의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각 분야를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2-20)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 분류체계



※ 출처 : IDC, Worldwide Business Analytics Software 2013–2017 Forecast and 2012 Vendor Shares, 2013.6; IDC, Worldwide Business Analytics Software 2013–2017 Forecast and 2012 Vendor Shares, 2013.6; Crispidea, Big Data, Analytics and Business Intelligence Industry Report, 2014.5;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재구성 이하 동일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위의 3가지 분야의 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을 주로 살펴보고, 3가지 분야 외에 데이터 통합·서비스 솔루션(Data Integration & Services) 분야를 추가하여 총 4개 분야를 짚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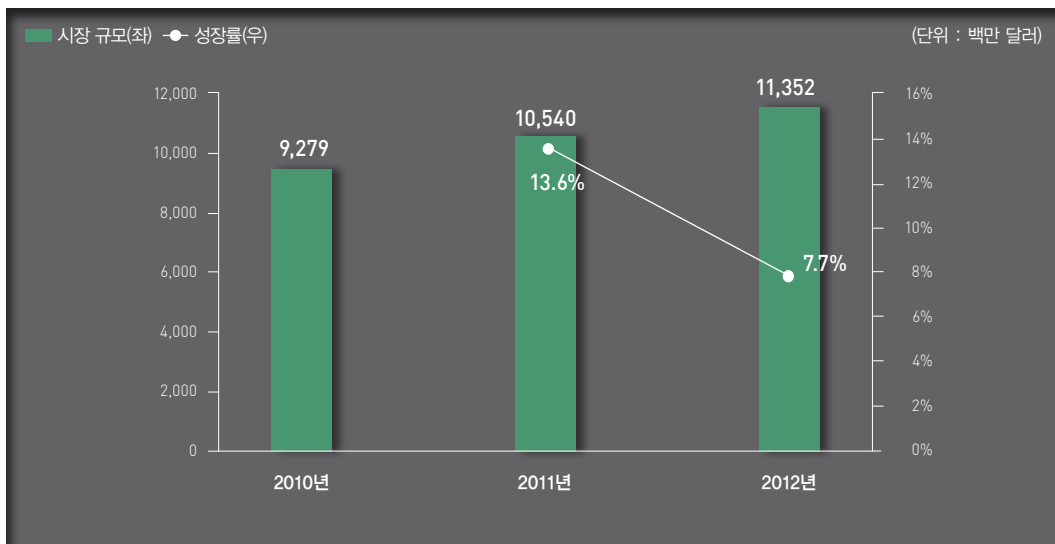
1. 성능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시장

가. 시장 현황 및 전망

성능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시장은 1) FPM(Financial Performance and Strategy Management Applications), 2) CRM Analytic Applications, 3) Supply Chain Analytic Applications, 4) Service Operations Analytic Applications, 5) Workforce Analytic Applications, 6) Production Planning Applications의 6개 세부 분야로 다시 나뉜다. 이들 6개 세부 분야는 비록 Analytic Application이라는 하나의 분류로 묶이기는 하지만, 각각 서로 다른 사업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세계 성능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11년 105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7.7%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13.6%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2012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셈이다.

(그림 2-2-21) 성능관리 및 분석 솔루션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주요 기업

성능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SAP, Oracle, IBM, SAS, Infor의 5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5개 업체가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4.4%에서 2012년 45.3%로 다소 증가했다.

SAP와 Oracle이 2012년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20.2%와 16.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부동의 1위와 2위를 유지하면서 3위인 IBM(시장 점유율 7.6%)과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업체별로 보면, SAP가 2012년 매출액 23억 달러, Oracle이 19억 달러, IBM이 8.6억 달러, SAS가 7.2억 달러, Infor가 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보면, Oracle과 SAS가 각각 7.3%와 7.0%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SAP와 Infor가 각각 4.9%와 4.1%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표 2-2-13〉 성능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주요 업체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매출액	시장 점유율	성장률	매출액	시장 점유율	성장률
SAP	2,190	20.8%	16.6%	2,297	20.2%	4.9%
Oracle	1,770	16.8%	12.9%	1,899	16.7%	7.3%
IBM	806	7.7%	18.1%	861	7.6%	6.8%
SAS	675	6.4%	19.9%	723	6.4%	7.0%
Infor	413	3.9%	7.5%	430	3.8%	4.1%
기타	4,685	44.4%	11.5%	5,143	45.3%	9.8%
합계	9,279	100.0%	13.6%	11,352	100.0%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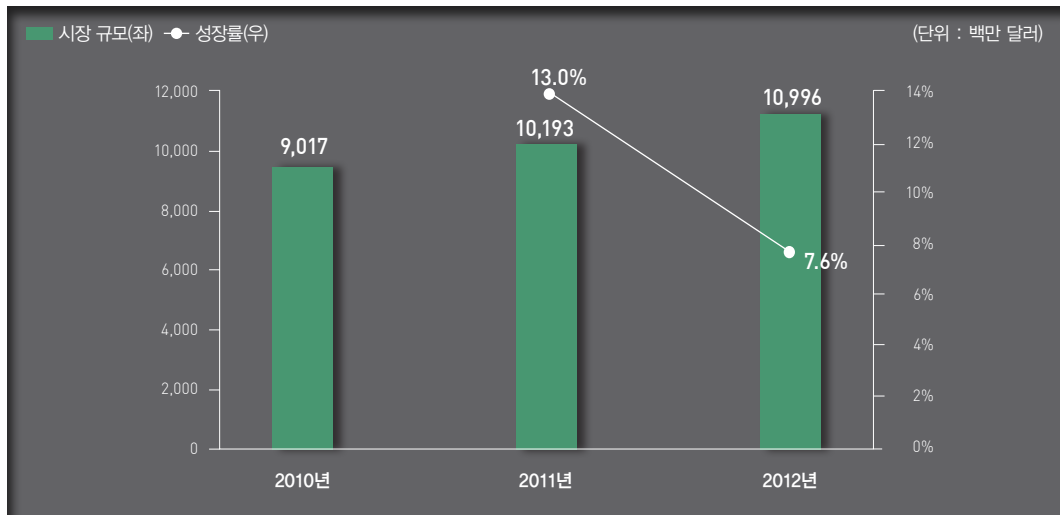
2. BI 솔루션 시장

가. 시장 현황 및 전망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솔루션 시장은 크게 1) Query, Reporting, Analysis Tools, 2) Advanced Analysis Tools, 3) Content Analysis Tools, 4) Spatial Information Analytics Tools의 4개 세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 4개 분야 중 1) Query, Reporting, Analysis Tools, 2) Advanced Analysis Tools의 2개 분야만 시장 규모에 포함시켰다.

세계 BI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11년 102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7.6% 증가한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Query, Reporting, Analysis Tools 분야가 90억 달러로 이 시장의 약 82%를 차지했으며, Advanced Analysis Tools 분야가 20억 달러로 약 18%를 차지했다.

(그림 2-2-22) BI 솔루션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주요 기업

BI 솔루션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SAP, IBM, SAS, Microsoft, Oracl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5개 업체가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62.4%로 이들 선두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SAP와 IBM이 2012년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19.7%와 14.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SAS와 Microsoft, Oracle이 각각 10.3%와 9.5%, 8.9%로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SAP가 2012년 매출액 22억 달러, IBM이 15억 달러, SAS가 11억 달러, Microsoft가 10억 달러, Oracle이 9.8억 달러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보면, Microsoft가 16%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SAS가 6.7%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SAP와 IBM, Oracle이 3~4%대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표 2-2-14〉 BI 솔루션 주요 업체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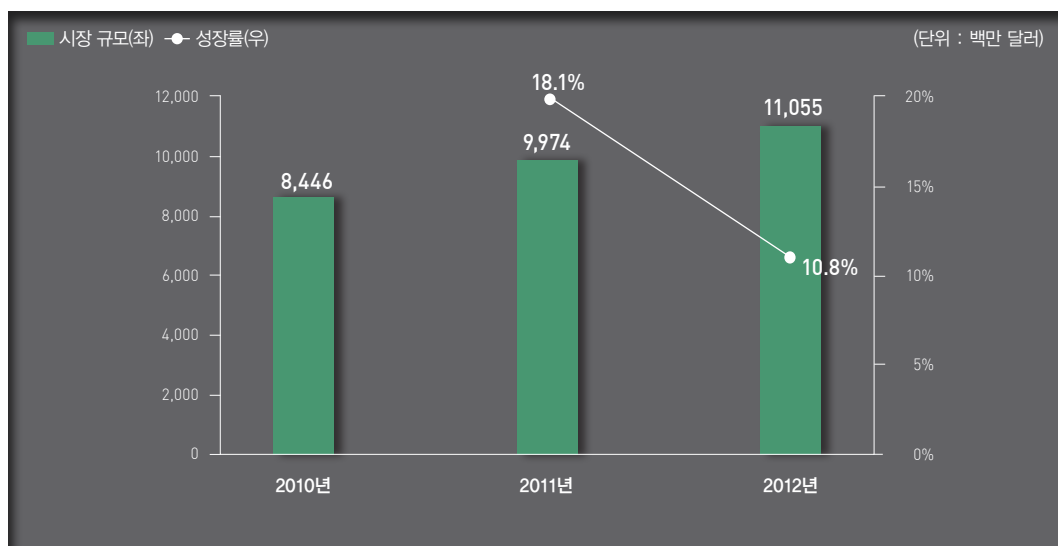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매출액	시장 점유율	성장률	매출액	시장 점유율	성장률
SAP	2,075	20.4%	11.2%	2,165	19.7%	4.4%
IBM	1,484	14.6%	13.9%	1,534	14.0%	3.4%
SAS	1,063	10.4%	9.0%	1,134	10.3%	6.7%
Microsoft	900	8.8%	12.3%	1,044	9.5%	16.0%
Oracle	935	9.2%	16.6%	979	8.9%	4.7%
기타	3,737	36.6%	14.3%	4,110	37.6%	10.0%
합계	10,193	100.0%	13.0%	10,966	100.0%	7.6%

3. DW 솔루션 시장

가. 시장 현황 및 전망

데이터웨어하우스(DW) 솔루션 시장은 크게 1) DW Generation과 2) DW Management의 2개 세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DW Generation은 DW의 설계(design), 정제(cleansing), 변환(transformation), 로딩(loading), 운영(administration)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DW Management는 DW 내의 데이터 관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세계 DW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11년 10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0.8% 증가한 1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DW Generation 분야가 약 25억 달러로 이 시장의 22.2%를 차지했으며, DW Management 분야가 약 86억 달러로 77.8%를 차지했다.

(그림 2-2-23) DW 솔루션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주요 기업

DW 솔루션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Oracle, IBM, Microsoft, Teradata, SAP, SAS의 6개 업체가 있다. 이들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DW 솔루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2년 기준 86.5%로, 소수 상위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1위 업체인 Oracle은 2012년 매출액 35억 달러, 시장 점유율 31.7%로 전체 시장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2위인 IBM이 매출액 22억 달러, 시장 점유율 19.7%를 차지했는데, IBM은

상위 6대 업체 중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가장 낮은 1.7%에 그쳤다. 2012년 성장률을 보면, SAP가 약 50%라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Microsoft, Teradata도 각각 15%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표 2-2-15〉 DW 솔루션 주요 업체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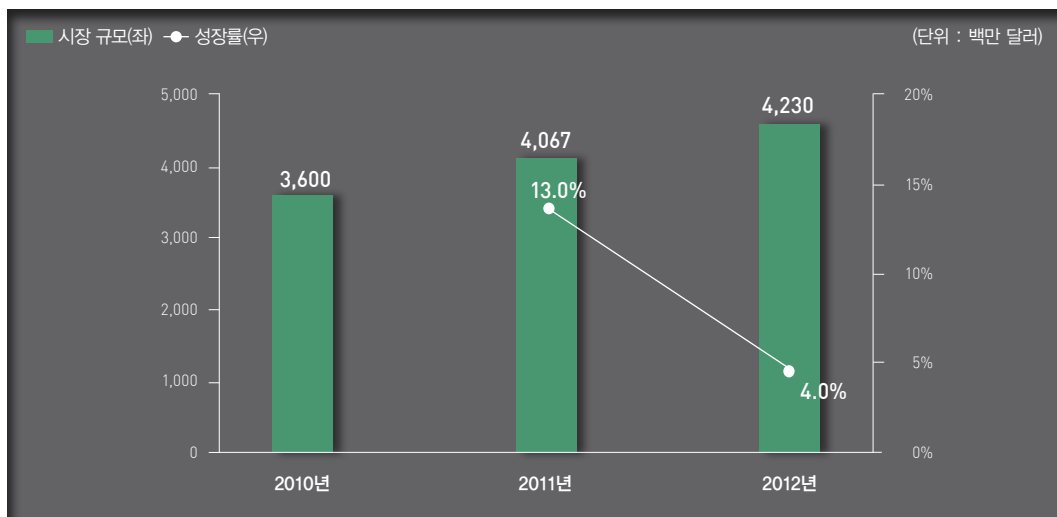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매출액	시장 점유율	성장률	매출액	시장 점유율	성장률
Oracle	3,305	33.1%	21.1%	3,508	31.7%	6.1%
IBM	2,143	21.5%	12.7%	2,180	19.7%	1.7%
Microsoft	1,343	13.5%	11.0%	1,550	14.0%	15.4%
Teradata	899	9.0%	13.9%	1,024	9.3%	14.0%
SAP	509	5.1%	83.5%	762	6.9%	49.5%
SAS	504	5.1%	10.6%	545	4.9%	8.1%
기타	1,271	12.7%	16.4%	1,488	13.5%	17.0%
합계	9,974	100.0%	18.0%	11,055	100.0%	10.8%

4. 데이터 통합·서비스 솔루션 시장

가. 시장 현황 및 전망

데이터 통합·서비스(Data Integration & Service) 솔루션 시장은 Bulk Data Movement, Data Access Infrastructure, Composite Data Framework, Data Quality Management, Master Data Management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데이터 통합·서비스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11년 40.7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4.0% 증가한 4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Bulk Data Movement 분야가 약 11.6억 달러로 이 시장의 27.4%를 차지했으며, Data Access Infrastructure 분야가 약 9.8억 달러로 23.1%를 차지, 이 두 분야가 데이터 통합·서비스 솔루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5%로 절반 이상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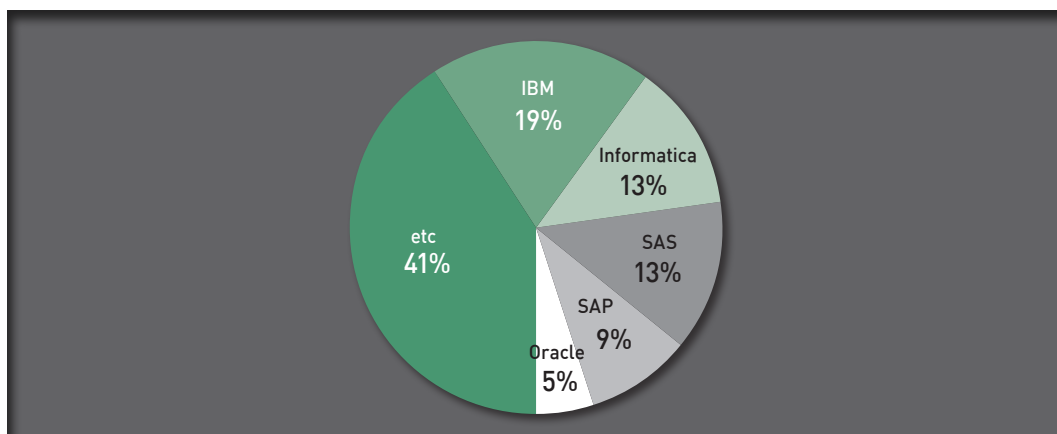
(그림 2-2-24) 데이터 통합·서비스 솔루션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나. 주요 기업

데이터 통합·서비스 솔루션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IBM, Informatica, SAS, SAP, Oracle의 5개 업체가 있다. 이들 5개 업체가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약 60%에 달한다. IBM이 2012년 매출액 기준으로 19%를 차지,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Informatica와 SAS가 각각 13%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SAP와 Oracle은 각각 9%와 5%로, 한 자릿수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25) 데이터 통합·서비스 솔루션 주요 업체 매출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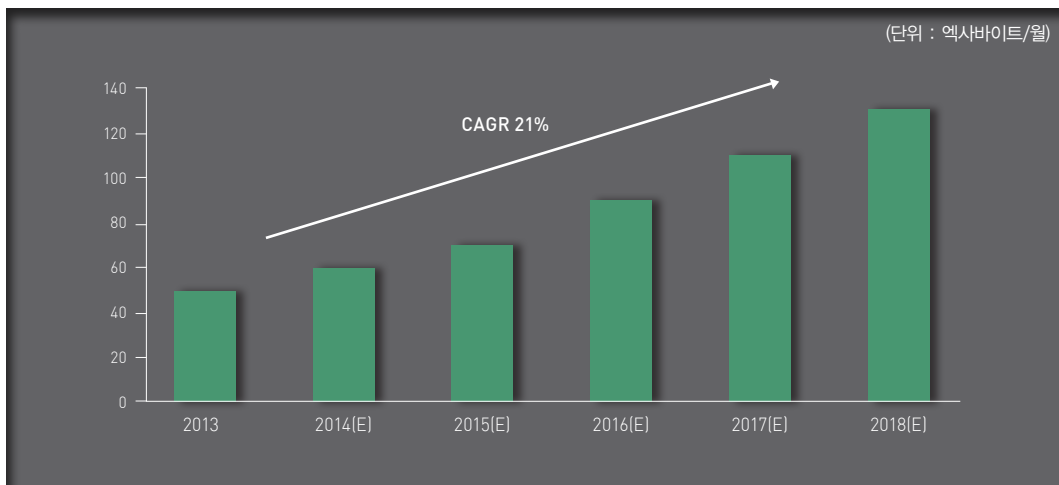
제3절 빅데이터 시장 현황

1. 시장 현황 및 전망

과거에는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CRM이나 ERP 등 기업 내부 업무에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업들의 고객이 생성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Google, Facebook, Amazon, eBay 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데이터 이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형적인 데이터 외에 비정형 데이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Cisco에 따르면, 오는 2018년에는 전세계 IP 트래픽이 연간 1.6 제타바이트(zetabyte)에 달해 1조 5,000억 기가바이트(gigabyte)를 넘어서고, 월 평균 트래픽은 132 엑사바이트(exabyte)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26) 세계 월 평균 IP 트래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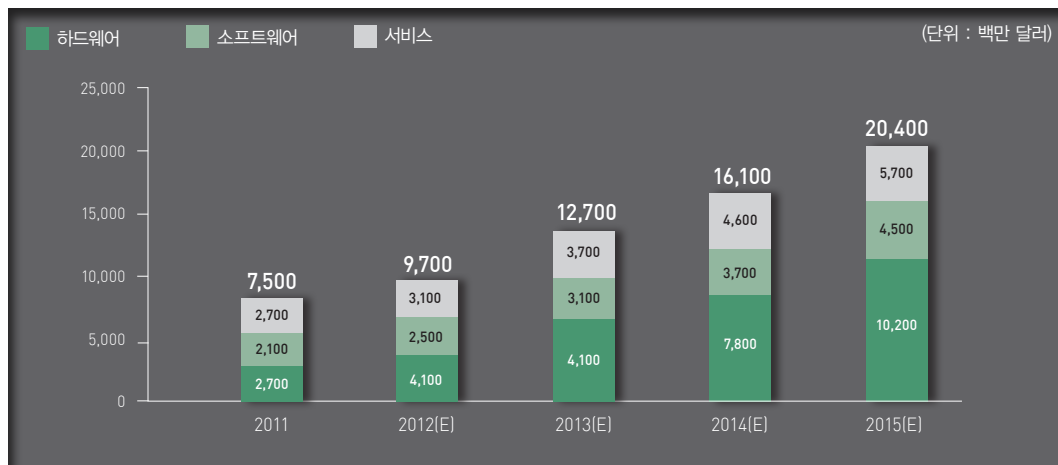


※ 출처 : Cisco,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Forecast and Service Adoption for 2013 to 2018, 2014.6

이처럼 데이터 사용이 폭증하고, 비정형 데이터 및 데이터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들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솔루션들이 다루기 쉽지 않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 및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 솔루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솔루션은 실시간 분석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즉각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인 J.P.Morgan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2년 97억 달러에서 2013년 1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2015년까지 연간 약 27%씩 증가, 204억 달러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 시장 중에서는 하드웨어 시장이 2013년 기준 59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46.5%, 소프트웨어 시장이 31억 달러로 24.4%, 서비스 시장이 37억 달러로 2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7)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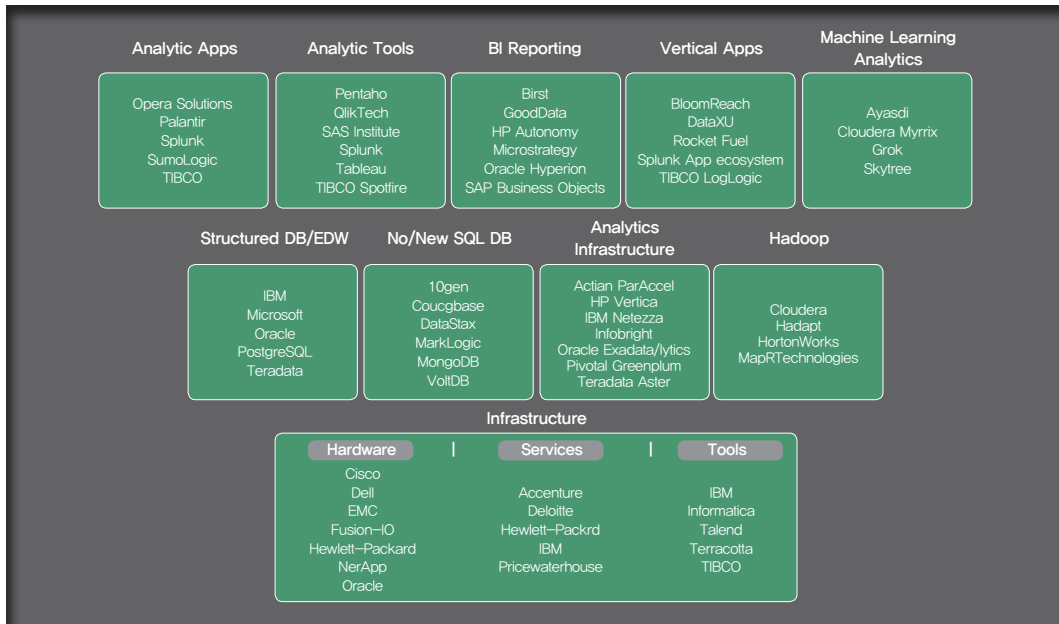
※ 출처 : J.P.Morgan, What is the newest part of IBM's Big Data/Analytics growth engine?

2. 주요 기업

빅데이터 시장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시장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분야마다 여러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인 Jefferies에 따르면, 빅데이터 시장은 Analytics Apps, Analytics Tools, BI Reporting, Vertical Apps, Machine Learning Analytics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며,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 특화되거나 또는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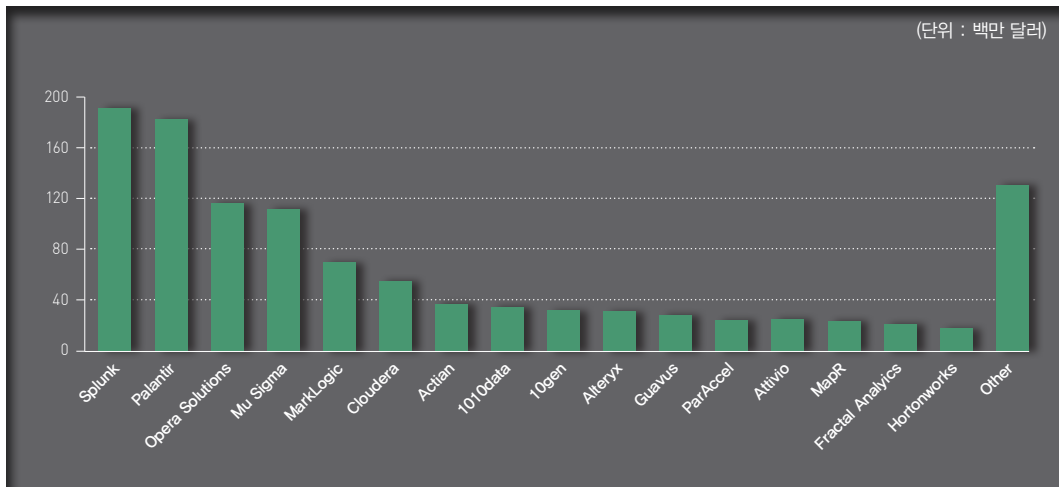
빅데이터 인프라 중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Cisco, Dell, HP 등과 같은 장비 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Accenture, Deloitte, IBM 등과 같은 컨설팅 기업들이, 솔루션 분야에서는 IBM, Informatica 등과 같은 기존 솔루션 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 그 외 다른 분야에서는 Splunk, Palantir, Opera Solutions, Mu Sigma 등 순수 빅데이터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다. 인프라 외 다른 분야에서 순수 빅데이터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빅데이터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이에 따라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대개 매출의 80% 이상을 빅데이터 분야에서 발생시키는 기업을 순수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들 중 Splunk와 Palantir가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Opera Solutions, Mu Sigma가 3~4위권을 다투고 있다. 2012년 기준 매출액을 보면, Splunk와 Palantir가 약 1.8억 달러, Opera Solutions와 Mu Sigma가 약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2-2-28) 빅데이터 시장의 분야별 주요 기업



※ 출처 : Jefferies, Big Data to Machine Data ; Enterprise Adoption Nears, 2013.11

(그림 2-2-29) 순수 빅데이터 기업의 매출액 비교



※ 출처 : Jefferies, Big Data to Machine Data ; Enterprise Adoption Nears, 2013.11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김 인 현

2013 데이터 구루 수상
투이컨설팅 대표

데이터 엔터프라이즈의 시작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는 프로세스 혁신의 시대였다.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기업들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마이클 해머(Michael Hammer)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기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극적인 성과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프로세스 혁신 운동은 더 나은 프로세스를 외부에서 벤치마킹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으로 이어졌다. 목표 프로세스를 정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베스트 프로세스(best practice)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책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기업들이 ERP 패키지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10년대에 들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프로세스 최적화 상태에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세스 투자의 한계 효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대 이후 새로운 기업 환경이 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IT 기술이 성숙되었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이다. 데이터를 보다 잘 관리하고 이를 분석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업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혁신의 마지막 프론티어는 이제 데이터 영역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을 이룬 기업, 데이터 엔터프라이즈가 향후 기업들의 목표 모델이 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업의 많은 활동은 분석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적시성은 기업 성과를 좌우

한다. 기업은 전통적으로 보다 나은 의사결정 과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뛰어난 관리자 또는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지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왔다. 이러한 방식은 과다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분석 및 직관 능력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의 의사결정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에 분석 모듈을 내재화시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둘째, 분석의 적중률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거래 결과를 기록한 전통적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물론 고객 접촉 데이터, 공정 센서 데이터,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기존 전통적 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데이터 기반 외부 연계

1990년대 기업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과 얼마나 차별화되는가에 달려 있었다. 차별화 수준은 기업의 협상력을 결정하게 되고, 협상력이 강하면 더 큰 수익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기업 경쟁력은 외부의 많은 경제 주체들과 얼마나 잘 연계되느냐에 달려 있다. 수요기업과 협력기업, 개인 고객, 금융 기업 그리고 정부 기관들과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외부 경제 주체와 연계하는 것은 외부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내부 의사결정 및 프로세스에 활용하는 것과 내부 데이터를 외부 경제 주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외부 데이터는 기업의 수요 예측, 생산 및 판매 계획 수립, 실시간 오퍼링, 부정 거래 탐지 등 많은 기업의 활동성과를 높인다. 외부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내부 프로세스 및 분석 모듈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축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외부에 데이터를 공개하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및 연구개발, 개인 데이터(personal data) 서비스, 협력사 및 수요기업의 계획 프로세스 등을 촉진할 수 있다. 외부 데이터 공개는 API를 이용한 LOD(Linked Open Data)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 기업 생태계와 얼마나 원활하게 협동하고 있는가는 기업이 제공하는 API의 규모와 품질에 비례한다.

환경 탐색 및 미래 예측

기업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사업계획 수립의 출발점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알아내는 능력이 사업계획의 적중 수준을 결정한다. 전통적으로, 과거 실적을 기본으로 경제 성장률, 물가, 환율 등의 예측치를 적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는 기업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환경 탐색(environmental scanning)과 미래 예측(future project)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환경 탐색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는 미미하나 몇 년 뒤에는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신호(weak signal)를 미리 알아내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미래 예측은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영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하여 서비스와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고객 효용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분석 팩토리

데이터 엔터프라이즈의 핵심은 분석 팩토리이다. 프로세스 엔터프라이즈는 분석 자체를 사람이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의 분석 역량은 교육과 정보 공유로 해결해 왔다. 그렇지만,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는 분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로부터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서, 분석 모듈을 만들고 프로세스에 내재화시키는 방식을 적용한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석 모듈을 만들어내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분석 팩토리이다. 분석 모듈의 성능 평가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얼마나 잘 맞추었는가를 적중률로 측정한다. 분석 팩토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 역량을 강화시킨다.

첫째, 분석 모듈을 적용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기업 내부에 새로운 분석 기회를 찾아내고 분석 모듈을 개발하여 해당 프로세스에 내재화시키는 일을 수행한다.

둘째, 각각의 분석 모듈을 진화시키는 것이다. 분석 모듈의 적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분석 모듈은 개발하여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적중률이 향상된다. 분석 모듈은 피드백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진화한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도입 방안

디지털 사회 기업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엔터프라이즈의 모습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정과 이론을 찾아내서 이를 토대로 무엇을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분석 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기업 활동은 수 많은 분석 기회의 집합체이다. 중요한 점은 각각의 분석 결과는 기업 성과 최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분석이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면 기업 활동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석 간의 관련성과 우선 순위를 정의하는 분석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이것은 다수의 분석 기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베이스라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 역량은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구조적 데이터와 비구조적 데이터 등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IT 부서의 데이터 전문가를 갖추어야 한다.